

보험동향 2020년 여름호

총괄	김세중 (연구위원)
경영환경	최예린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보험동향	최 원 (수석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 목차

I. 경영환경

1. 경제 / 2
2. 금융 / 12
3. 자금흐름 / 19
4. 규제·제도 / 22

II. 보험동향

1. 성장성 / 26
2. 수익성 / 50
3. 리스크 / 60
4. 시장경쟁 / 63

I. 경영환경

- 2020년 2월부터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기 둔화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세계 경기가 수축하는 모습임
- 우리나라도 2019년 4/4분기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성장률이 둔화됨
 - 민간소비 및 건설수주 등 주요지표가 2020년 1/4분기 크게 하락함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9년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5월 28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함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국내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함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50bp대에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신용스프레드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진정됨
- 2020년 1/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국내주식 거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 거래는 축소됨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최근 10년 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0년 1/4분기 13.3%를 기록하면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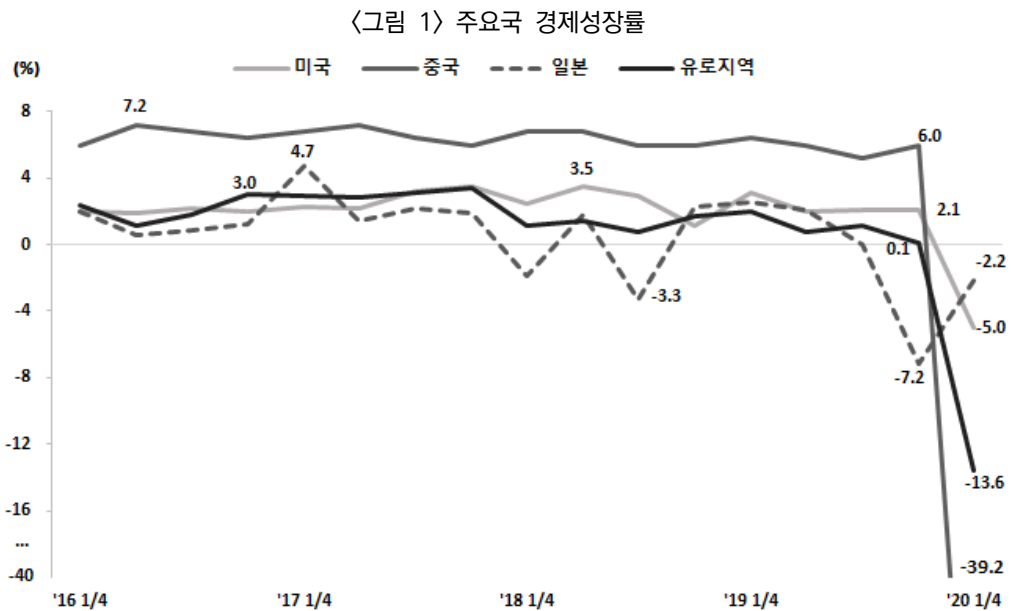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2020년 1/4분기 주요국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 2020년 1/4분기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5.0%, -13.6%를 기록하며 전분기에 비해 각각 7.1%p, 13.7%p 하락함.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5.0%p 상승하였으나 -2.2%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역성장함

○ 중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39.2%로, 28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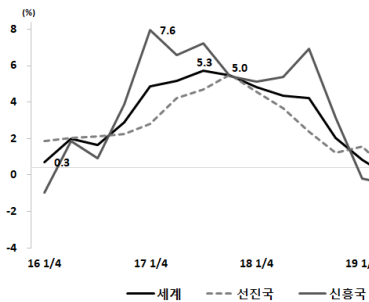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0. 6); 중국 국가통계국(2020. 4); 일본 내각부(2020. 6); Eurostat(2020. 7)

■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2020년 1/4분기 각각 큰 폭으로 하락함

○ 2020년 1/4분기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3.2%p 하락한 -4.2%를 기록하였고,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p 하락한 -1.6%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4%p 하락한 -3.2%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¹⁾
- 2020년 1/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3.2%, -3.4%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각각 2.1%p, 5.0%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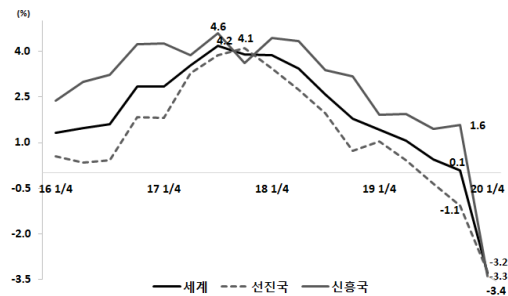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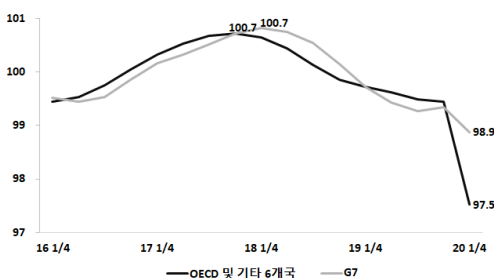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 세계 경기선행지수²⁾는 2020년 1/4분기 97.5를 기록하며 대폭 하락함

- 2020년 1/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8.9로 전분기보다 0.4 하락하였고,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은 각각 0.4, 0.9, 0.2 하락한 98.9, 98.6, 99.3을 기록함
-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5.5 하락한 92.7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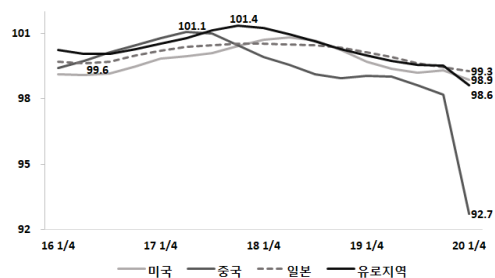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1) UNCTAD(2020. 5), *How COVID-19 is Changing the World: a statistical perspective*

2)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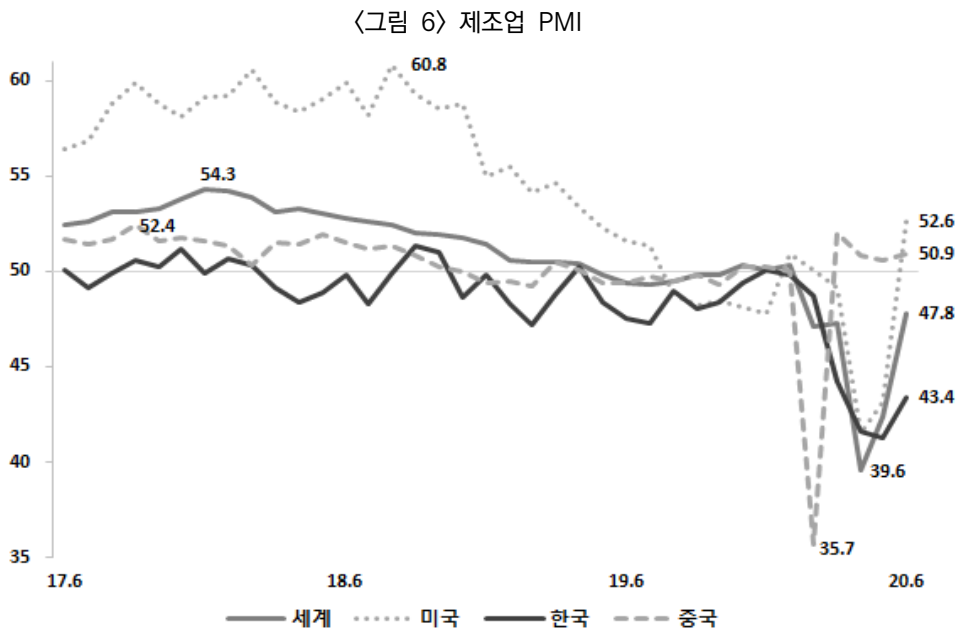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³⁾는 2020년 4월, 1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2개월 연속 반등함

○ 2020년 4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월 대비 7.7 하락한 39.6을 기록함

- 중국은 2020년 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35.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반등함

○ 2020년 6월 주요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미국(52.6), 중국(50.9), 한국(43.4)

모두 반등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임



주: 전분기 대비, 3개월 이동평균임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2020년 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고려하여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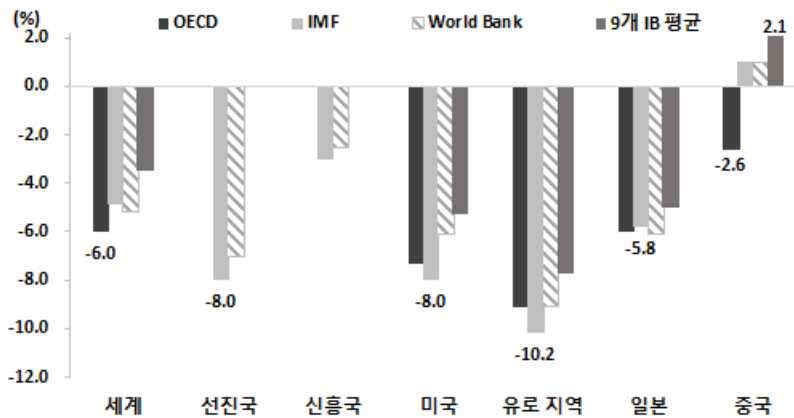
○ OECD는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주요국에서 재확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망하였으며,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발생하는 경우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7.6%로 전망함⁴⁾

3)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4) OECD(2020. 6), *Economic Outlook*

-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주요국에서 재확산하지 않을 경우, OECD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0%임

〈그림 7〉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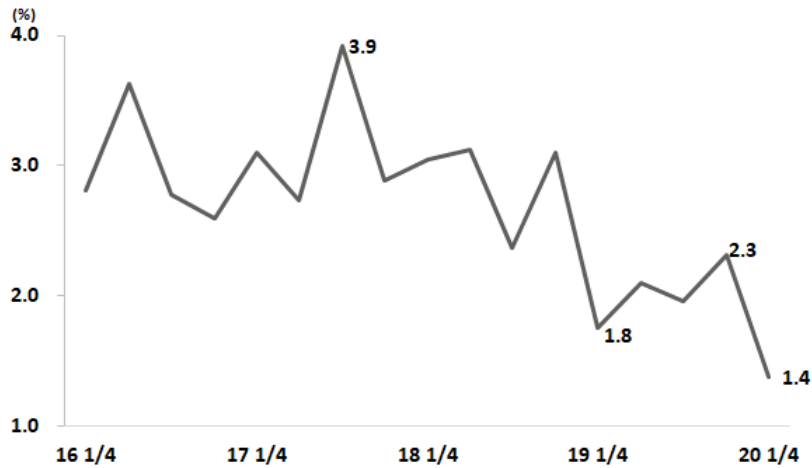
주: OECD 전망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2020년 내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전망치임
 자료: IMF(2020. 6); OECD(2020. 6); World Bank(2020. 6); 9개 IB 평균(2020. 6)

나. 국내경제

- 2020년 1/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로 전분기 대비 0.9%p 감소함

- 민간소비 및 건설수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2020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 감소에 영향을 미침

〈그림 8〉 국내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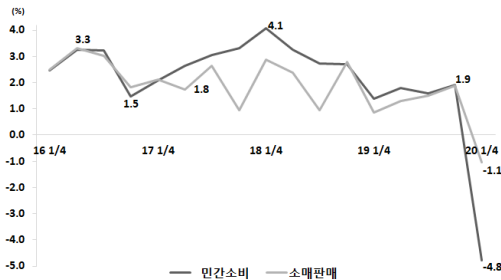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1/4분기 민간소비 및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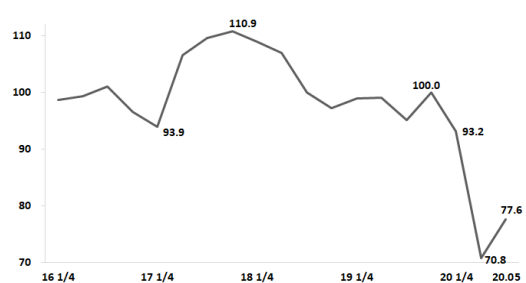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4.8%, -1.1%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보다 6.8 하락한 93.2를 기록함
- 소비자심리지수는 2020년 4월 70.8을 기록하며 2008년 12월(67.7)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5월(77.6)에 반등함

〈그림 9〉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1/4분기 들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건설수주는 크게 하락함

○ 2020년 1/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6%p 상승한 4.2%를 기록하였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9.3%p 상승한 7.3%를 기록하였으며,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2.4%로 전분기보다 0.6%p 하락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3월 중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⁵⁾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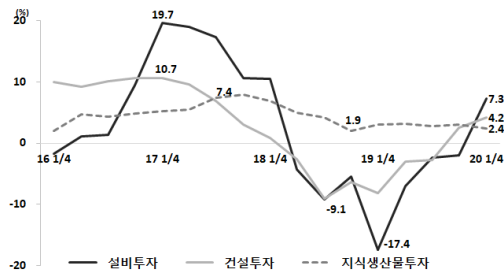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기계수주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p 상승하여 16.6%를 기록하였고, 건설수주 증가율은 19.2%p 하락하여 1.7%를 기록함

- 기계수주 증가율은 1월과 2월 전자부품·컴퓨터 등에서⁶⁾ 증가하면서 상승함

- 건설수주 증가율은 철도·궤도 등 토목부문 및 주택 등 건축부문⁷⁾ 모두 감소하여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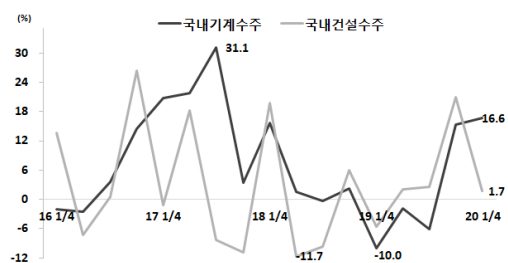
○ 2020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건설수주 증가율은 -35.6%로 감소하였으나 5월 24.3%로 반등하였고, 4월 전년 동월 대비 기계수주 증가율은 0.1% 상승하였으나 5월 -12.6%로 하락함⁸⁾

〈그림 11〉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기계수주, ¹⁾ 건설수주 ²⁾ 증가율



주: 1) 선박 제외함
2) 경상
자료: 통계청

■ 2020년 1/4분기 수출 증가율은 2019년 1/4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수입 증가율은 하락함

○ 2020년 1/4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9%p 상승하여 5.6%를 기록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0.3%p 하락하여 0.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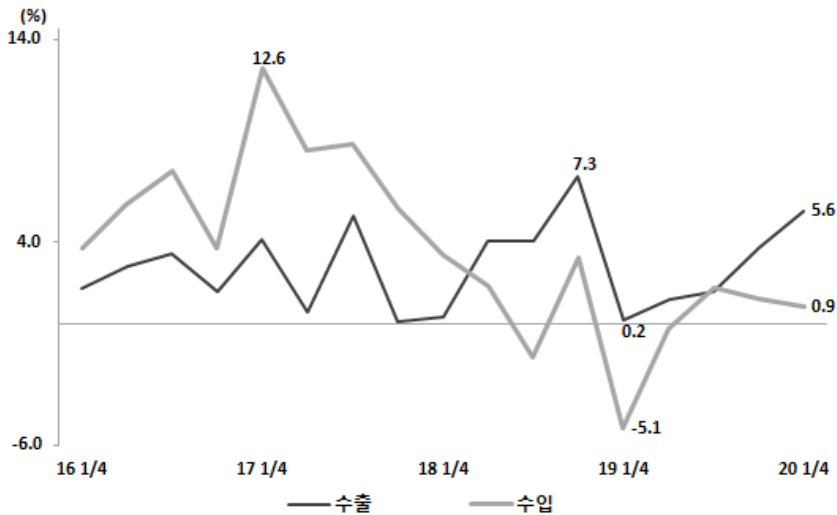
5) 통계청 보도자료(2020. 4),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

6) 통계청 보도자료(2020. 2),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3), “2020년 2월 산업활동동향”

7) 통계청 보도자료(2020. 4),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

8) 통계청 보도자료(2020. 6),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3〉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1/4분기 선행지수⁹⁾ 순환변동치는 상승하고 경제성장률과 동행지수¹⁰⁾ 순환변동치는 하락하였으나, 2020년 4월과 5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반 하락함

○ 2020년 1/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3월 코스피, 경제심리지수 등이 감소하였으나 2월과 3월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상승하여¹¹⁾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100.0을 기록함

○ 2020년 1/4분기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 및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여¹²⁾ 전분기보다 0.4 하락한 99.6을 기록함

- 2020년 4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비농림 어업 취업자 수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의 감소로 전월 대비 1.3 하락한 97.3임

9)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가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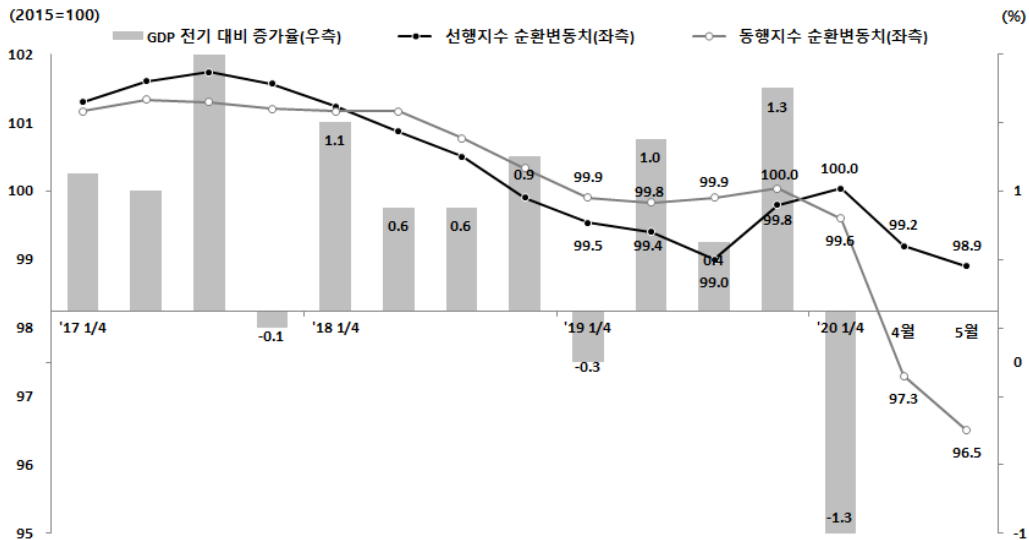
10)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 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11) 통계청 보도자료(2020. 2),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3), “2020년 2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4),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

12) 통계청 보도자료(2020. 3), “2020년 2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4),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

- 2020년 4월과 5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2에서 98.9로 0.3 하락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3에서 96.5로 0.8 하락함

〈그림 14〉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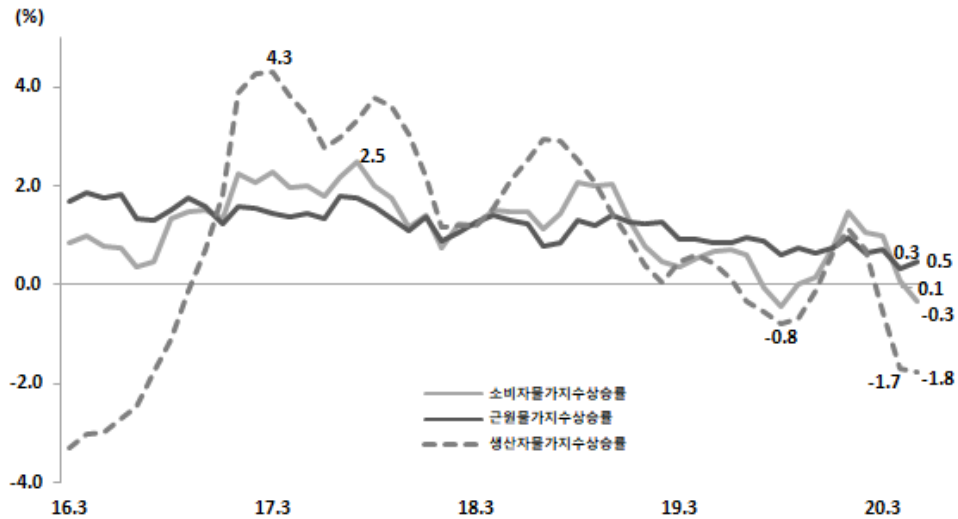
주: 2020년 1/4분기, 4월과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9월 역대 최저치인 -0.4%를 기록하고 반등하였으나, 코로나 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임
- 2020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하여 -0.3%를 기록함
-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문화 관련 가격이 감소하면서¹³⁾ 개인서비스 부문이 크게 감소함¹⁴⁾

13) 전년 동월 대비('20. 4 → 5), 해외단체여행: -10.1% → -7.7%; 학교급식: -35.8% → -63.0%; 호텔숙박: -6.8% → -8.0%

14) 기획재정부(2020. 6), 「최근경제동향」

〈그림 15〉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어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9년 경제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입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2020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2%, 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¹⁵⁾의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최저 -2.0%(UBS)에서 최고 0.3%(HSBC)로, 평균 -0.4%로 전망함

15) 9개 IB(Barclays, BoA, Citi, Credit Suisse,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UBS, HSBC, UBS), 2020년 6월 말 기준임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F) ¹⁾		2021(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2.7	2.0	-0.2	0.2	3.1	3.9
민간소비	2.8	1.9	-1.4	-2.0	4.3	5.3
설비투자	-1.6	-7.7	1.5	0.9	6.5	7.9
건설투자	-4.0	-3.1	-2.2	1.4	-0.8	2.4
지식생산물투자	1.9	2.7	2.2	2.7	3.4	4.1
상품수출	4.0	0.5	-2.1	-1.7	3.2	3.9
상품수입	1.9	-0.8	-0.2	-1.1	3.9	5.6
실업률	3.8	3.8	4.0	3.9	3.7	4.1
소비자물가	1.5	0.4	0.3	0.4	1.1	0.8
경상수지	764	600	570	594	550	409
상품수지	1,119	769	715	778	800	664
서비스 본원	-355	-169	-145	-184	-250	-255
이전소득수지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0. 5),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0. 5),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2. 금융

가. 금리

■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5월 28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함¹⁶⁾

-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국내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과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인 0% 내외로 전망됨
 -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하방압력이 증대되어 0%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기준금리는 0.5%로 지난 3월에 이어 5월 추가 인하로 총 0.75%p 인하되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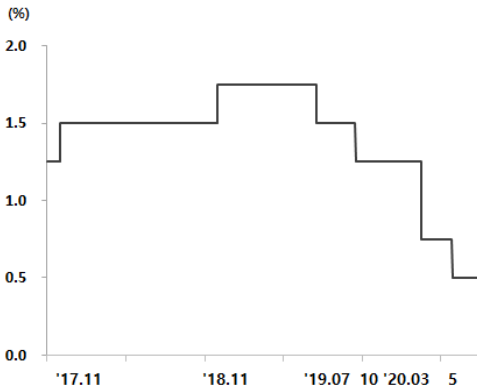
■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인하와 대규모 자산매입 및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¹⁷⁾

- 미국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0.00~0.25%)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및 MBS 무제한 매입, 특수목적기구(SPV) 설립과 회사채 및 기업대출 지원제도 등을 도입함
- 유럽 중앙은행(ECB)은 자산매입 프로그램(APP) 규모를 확대(연 0.24조 → 0.36조)하고 총 1.35조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도입함
- 영국 중앙은행(BOE)은 단기금융 및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CP 및 회사채를 매입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기업·가계 대출지원프로그램(TFSME)을 신설함
- 일본 중앙은행(BOJ)은 자산매입 규모를 20조 엔 이상 확대하고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대출지원프로그램(55조 엔)을 도입함

16) 한국은행(2020. 5. 28), 「통화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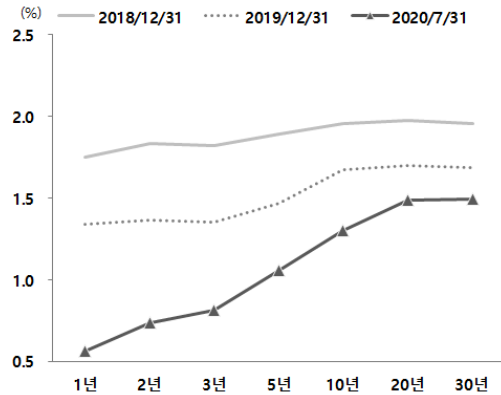
17) 한국은행(2020. 6. 1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그림 16〉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17〉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 장기 국채금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4월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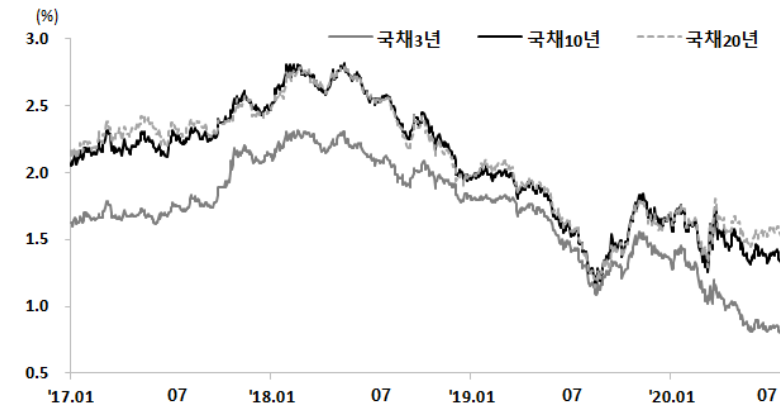
-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¹⁸⁾ 및 비우량 회사채 매입기구 설립,¹⁹⁾ 은행의 CD 발행 축소(전년 동기 대비 2.8조 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3년물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미·중 갈등 재점화²⁰⁾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월에는 사상 최저 수준(0.81%)을 기록함
- 한편, 10년물 국채 금리는 채권공급 확대 우려로 3년물 국채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임

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3. 24),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19) 정부는 지난 5월 20일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대상을 여전채 A+ 등급까지 확대하였으며,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AA~BB 등급)와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을 발표함

20)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코로나19 확산의 중국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국에 대한 반감을 표함

〈그림 18〉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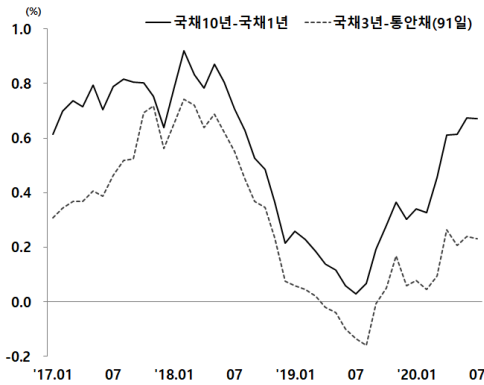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3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 및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50bp대에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2월 말 22.7bp까지 축소되었던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기준금리 인하와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인한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으로 55.8bp까지 확대됨
- 신용스프레드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진정됨
 - 정부는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지원, 코로나19 P-CBO 발행 등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한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함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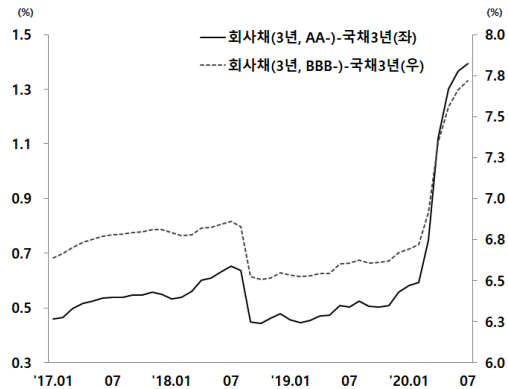
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7. 21), “자본시장 활성화와 실물경제 지원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동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림 19〉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20〉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 미국 국채금리는 미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 미·중 갈등 등의 하락요인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 상승요인이 혼재하여 0.6~0.8%(10년물)에서 보합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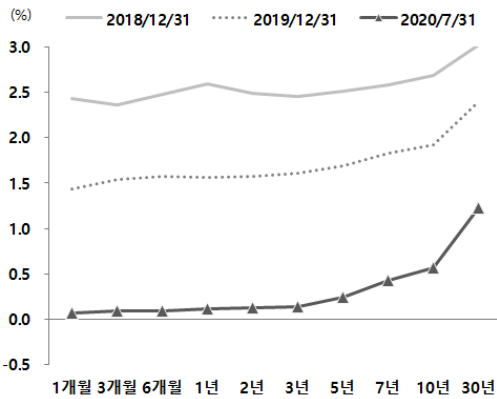
○ 5월에는 연방기금 금리선물(FFR)의 내년 1월물 약정가격이 100.025p까지 상승하는 등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²²⁾ 2년물 국채금리는 0.14%까지 하락하여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한편, 6월에는 미 연준이 2022년까지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EU의 경제회복기금 조정으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가 혼재하여 장기채권 금리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함

○ 한·미 장단기 스프레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국채발행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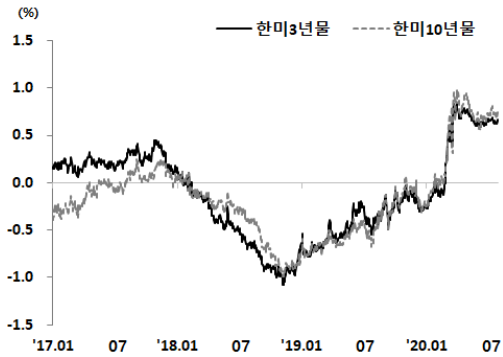
22) 통상 연방기금 금리선물 가격이 100을 넘어섰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향후 1년 후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21〉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그림 22〉 한국과 미국 금리차(3년, 10년)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3/4분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3월 전망치에 비해 하향 조정함
- 2020년 3/4분기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0.78%, 한국 국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36%, 0.78%로, 3년물을 제외하고 2분기보다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3분기 한국 3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 지난 3월 전망치인 1.26%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 금리			한국 국채(10년) 금리			한국 국채(3년) 금리		
'20. 3Q	4Q	'21. 1Q	'20. 3Q	4Q	'21. 1Q	'20. 3Q	4Q	'21. 1Q
0.78	0.87	0.96	1.36	1.34	1.45	0.78	0.82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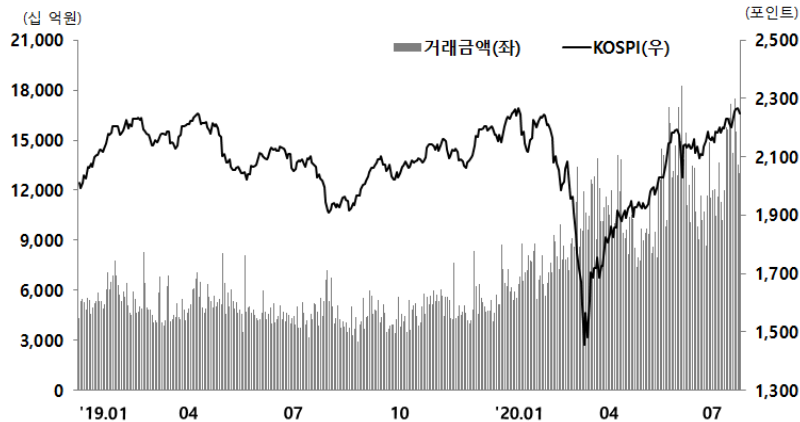
주: 2020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7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나. 주가

- 코스피(KOSPI) 지수는 4월 이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2,200선까지 반등함
- 3월 1,400선까지 하락하였던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감

- 한편, 6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01.48포인트 (15일) 급락하였으나,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로 하루 만에 반등함
- 7월 코스피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2,200선을 회복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

〈그림 23〉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다.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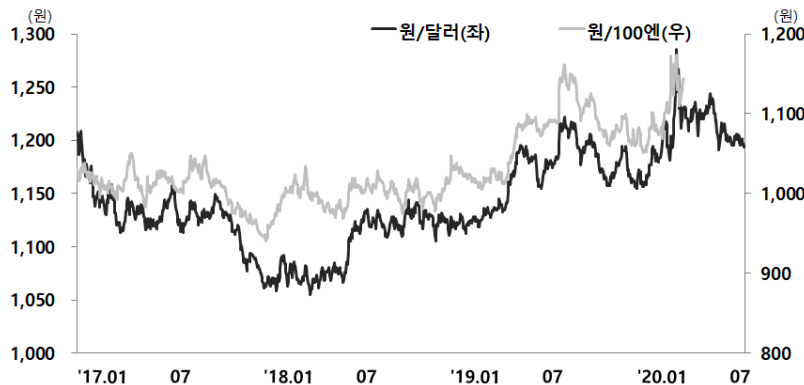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위험회피심리 고조에 따른 달러 확보 수요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등의 영향으로 1,190원 후반으로 하락함
 -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 재점화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5월 말 원/달러 환율은 1,239원까지 상승함
 - 이후에는 고용지표 개선²³⁾ 등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 연장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를 하회함
- 원/엔 환율은 미·중 갈등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100엔 당 1,153원(5월 25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로 소폭 하락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 고조 및 유로존, 신흥국 리스크 부각 등 자산시장 변동성 재확대²⁴⁾에 대한 우려는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짐

23)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480만 개가 증가해 두 달 연속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전월 대비 2.2%p 하락한 11.1%를 기록함

24)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0. 5. 8), 「외환: 계속되는 달러 강세의 불편함」,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0호

- 6월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와 일본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엔화는 1,110원 아래로 하락함
 - 일본의 2020년 2/4분기 단칸지수(대기업 제조업 경기판단지수)는 -34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²⁵⁾
- 이후에는 엔화의 강세요인과 약세요인이 혼재하며 1,1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함

〈그림 24〉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3/4분기에 원/달러와 달러/유로 환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유럽 경기 회복세 지연, 미국 대선 대기 등이 달러 약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0. 2Q	3Q	'20. 1Q	2Q	'20. 1Q	2Q
Morgan Stanley	1,203	1,215	108	109	1.12	1.15
Mizuho Bank		1,210		-		1.12
SCB Securities		1,200		-		1.15
Wells Fargo		1,190		107		1.16
MUFG		1,190		106		1.12

주: 2020년 3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7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25) 연합뉴스포맷(2020. 7. 1), “日 2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 업황지수 -34...예상치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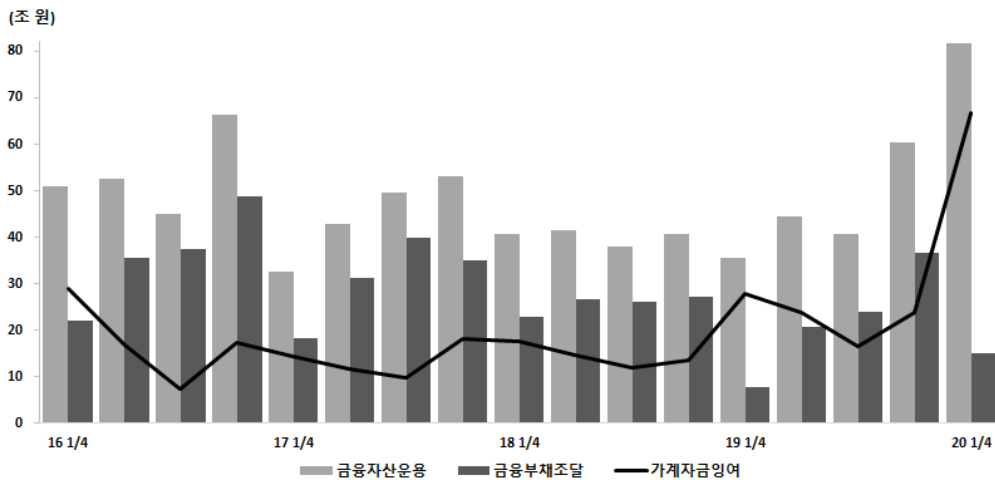
3. 자금흐름

■ 2020년 1/4분기 가계부문²⁶⁾의 자금잉여²⁷⁾는 분기를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81.8조 원, 금융부채 조달은 15.0조 원으로 66.8조 원의 자금잉여가 발생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활동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가계자금 잉여 증가에 기여함

〈그림 25〉 가계자금잉여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1/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국내주식 거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 거래는 축소됨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최근 10년 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0년 1/4분기 13.3%를 기록하면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26)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27)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표 4〉 가계금융상품거래

(단위: 조 원, %)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09	86.4	53.8	(37.1)	16.1	9.7	-2.2	-18.7	-0.1	145.0
2010	95.3	65.9	(44.7)	11.1	5.9	-0.2	-30.0	-0.6	147.4
2011	70.9	72.3	(45.6)	11.1	7.9	-0.3	-5.9	2.5	158.5
2012	36.9	99.0	(79.7)	10.5	-6.1	-0.4	-14.2	-1.5	124.2
2013	60.6	91.2	(60.5)	6.1	0.7	-0.3	-7.3	-0.2	150.7
2014	76.0	90.5	(53.2)	4.0	-0.8	0.8	-3.5	3.1	170.0
2015	107.9	89.8	(40.3)	4.7	5.3	1.7	9.5	4.1	223.0
2016	118.3	87.7	(41.0)	-0.9	9.9	0.1	-2.6	1.2	213.7
2017	101.2	83.3	(47.7)	-11.8	0.0	1.1	-3.9	4.7	174.6
2018	74.3	61.4	(40.3)	0.1	17.0	1.8	0.0	-2.1	152.4
2019	130.7	72.0	(39.7)	-17.6	-7.9	2.1	2.0	0.1	181.4
2020 1/4	66.0	10.9	(13.3)	-3.0	9.9	1.9	-6.7	2.8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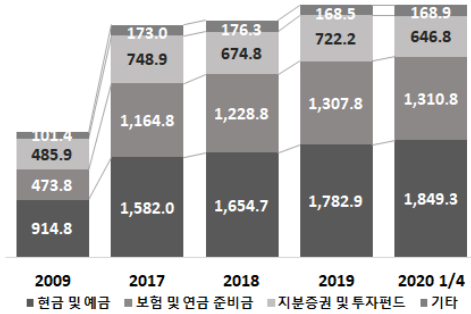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20년 1/4분기 가계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19년에 비해 0.2%p 증가함

○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2017년부터 상승하여 2020년 1/4분기 46.5%를 기록함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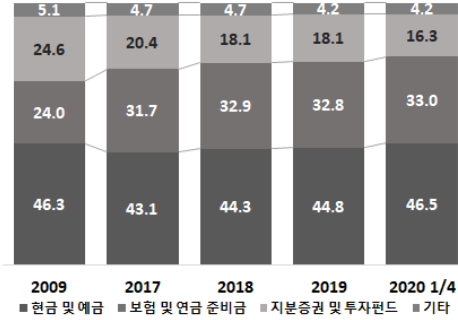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7〉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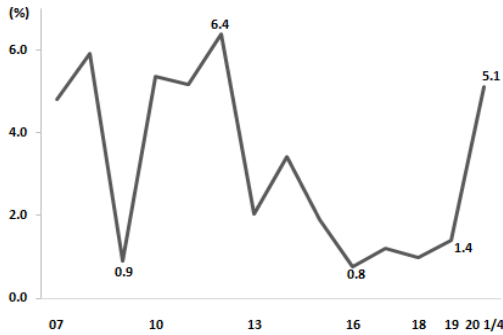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20년 1/4분기 5.1%를 기록함

○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4/4분기 12.0%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0.1%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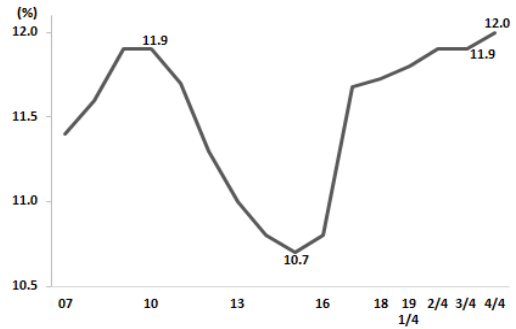
〈그림 28〉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주: 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2) 2020년 1/4분기 증가율은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통계 개편(고시 제2020-111호)에 따라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제외)'로 변경, 발표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9〉 DSR



자료: BIS

4. 규제·제도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2020. 6. 29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IFRS 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함(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2020. 6. 30)

■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2020. 6. 29 금융감독원)

-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의 보험가입 거절,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지급 거절 등을 금지하는 약관을 개선하여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임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2020. 6. 24 금융위원회)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 개선방안」(2019. 10. 22) 중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6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 이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 6. 23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①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②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2017년 5월, 2019년 6월). 6월 23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 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재보험업(Reinsurance) 제도개편방향 발표(2020. 6. 11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6월 11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재보험업’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하여 재보험업 허가종목을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을 완화하여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강화할 제도개편방향을 논의함

■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2020. 6. 4 금융감독원)

-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며,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함.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 시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하므로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따라서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함

■ 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2020. 6. 3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019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시 소비자보호 테마 중 하나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하여 대출금리 산정요소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고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함. 이에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금리변동위험을 제거하고, ②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함

■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0. 5. 27 금융감독원)

- 음주·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전자 책임성 강화, 보험금 누수 방지, 자동차 보험가액 정의를 보험 계약 시 및 사고 발생 시에 따라 구분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민원 분쟁을 예방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함

■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 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의 통과(2020.

5. 1 금융위원회)

- 4월 29일, 외화자산 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를 조정함(일반 계정 30%, 특별계정(변액·퇴직연금 등) 20% → 일반계정, 특별계정 모두 50%).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임

II. 보험동향

- 보험산업의 자산성장률은 2019년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2020년 1/4분기에는 5.2% 증가함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손해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함
 - 2020년 1/4분기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에는 책임준비금 확대 및 기타부채 확대가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은 2020년 1/4분기 마이너스 전환(-2.1조 원)됨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26.8조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만기 지급 증가와 사업비 확대 등이 보험영업현금흐름 감소의 주요인임
-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은 2020년 1/4분기 -0.17조 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분기(-1.4조 원)에 비해서 완화됨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3.9조 원을 기록함
 - 발생손해액과 사업비가 증가하여 보험영업현금흐름은 마이너스를 나타냈으나, 원수 보험료 증가세가 확대되고 사업비 증가세도 소폭 완화됨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손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74.3% 감소하였으며, 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도 고액 사고 발생과 사업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함
 - 생명보험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전입액 증가로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됨
 - 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2019년 105.7%에서 2020년 1/4분기 106.4%로 상승함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외국사는 축소됨
 -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은 대형사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되고 중소형 사는 소폭 축소됨

1.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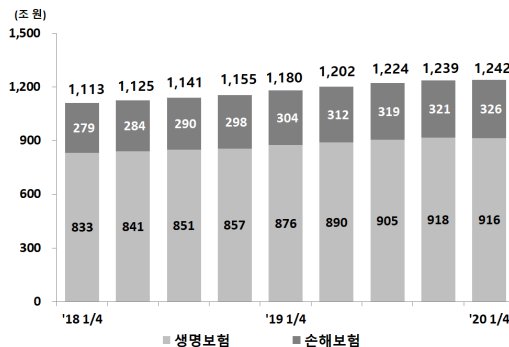
〈보험회사의 성장성〉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함
 - 보험산업은 통상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측정함
 -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투자영업)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보험산업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보여주는 지표는 자산성장률로 판단됨
-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

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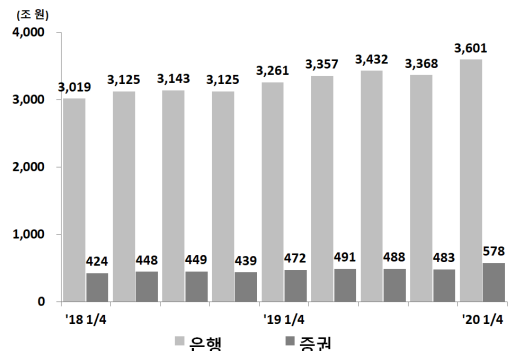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1,24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함
 -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은 916조 원이며,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326조 원임
 - 은행과 증권 산업의 총자산은 각각 3,601조 원과 578조 원임

〈그림 1〉 보험산업 자산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 은행 및 증권 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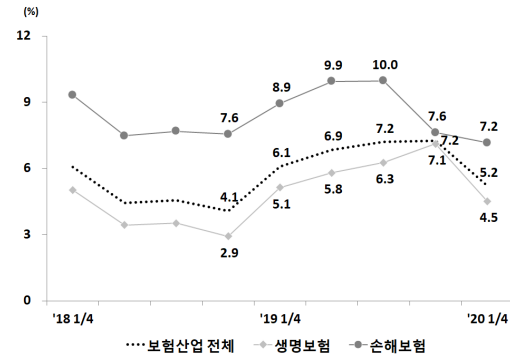
■ 보험산업의 2020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자산성장률은 5.2%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전년 동기 자산성장률보다 0.9%p 하락한 수치임

○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7.2%, 손해보험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성장세가 전년에 비하여 둔화되었음

○ 2020년 1/4분기 은행의 자산성장률은 10.4%로 전년 동기보다 2.4%p 상승하였고, 증권의 자산성장률은 22.4%로 전년 동기보다 11.1%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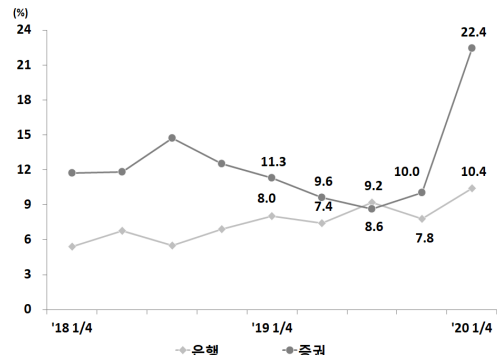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증가한 투자수요가 증권 자산성장률 확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임

〈그림 3〉 보험산업 자산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 은행 및 증권 자산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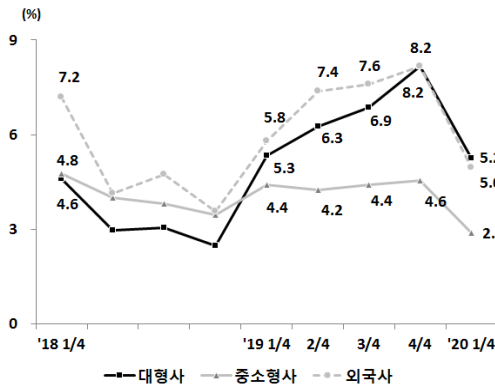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 자산성장률이,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사 자산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 보임¹⁾²⁾

○ 생명보험의 경우 2020년 1/4분기 중소형사 자산성장률은 2.9%에 그쳤으며, 대형사는 5.2%, 외국사는 5.0%를 기록함

○ 손해보험의 경우 2020년 1/4분기 중소형사 자산성장률이 10.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사는 7.2%, 대형사가 5.6%로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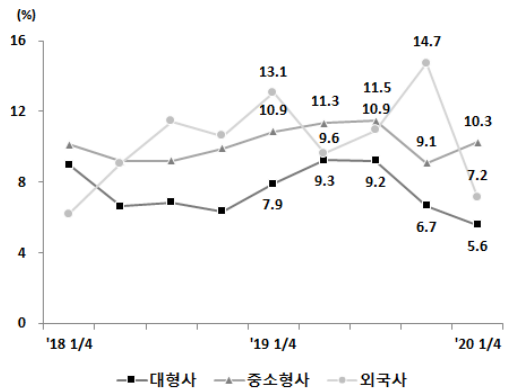
1) 생명보험산업은 총 24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회사, 중소형사 12개 회사와 외국사 9개 회사를 포함함(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
2) 손해보험산업은 총 31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회사, 중소형사 10개 회사와 외국사 17개 회사를 포함함(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

〈그림 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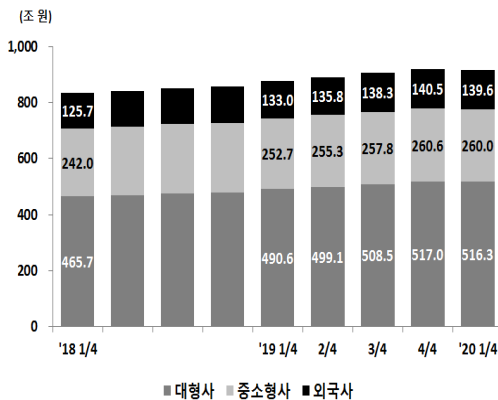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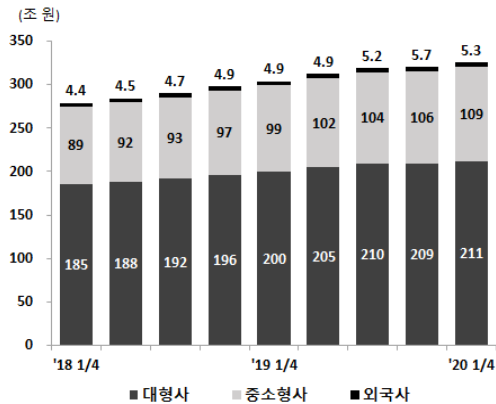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1)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이며, 중소형사는 12개사, 외국사는 9개사임
 2)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이며, 중소형사는 10개사, 외국사는 17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나. 생명보험 성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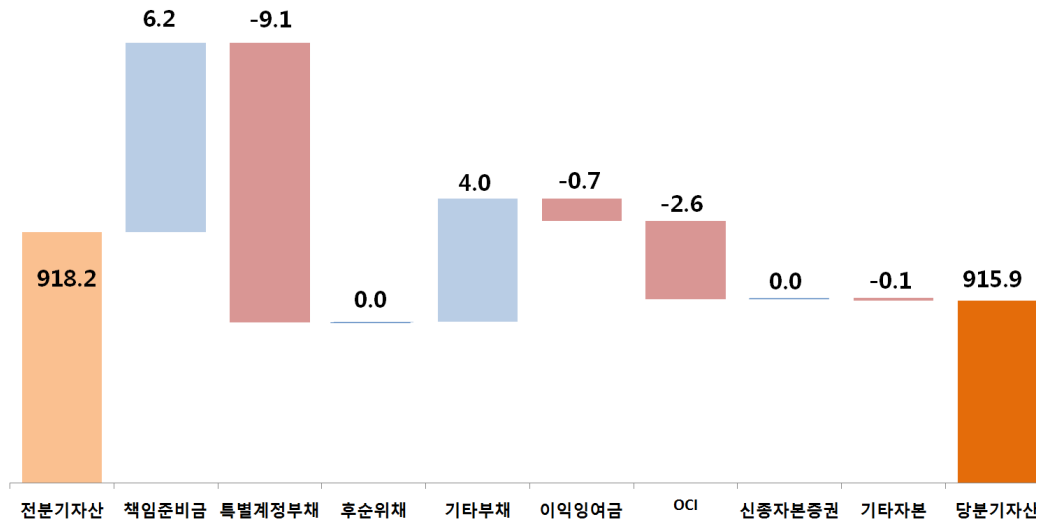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의 전분기 말 대비 자산 변화(2.3조 원 감소)는 특별계정부채, 책임준비금, 기타부채,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음

○ 책임준비금은 수입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 변화에 6.2조 원 기여하였으며, 기타 부채는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 등이 증가하여 자산 성장에 4.0조 원 기여함

- 그러나 특별계정부채의 전분기 대비 감소는 자산 감소에 -9.1조 원 기여하였으며, 평가 이익 변화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축소도 자산 감소에 -2.6조 원 기여함

〈그림 9〉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와 부리이자(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책임준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보험금(발생손해액), 사업비 및 '수입보험료 속에 포함된 위험률 차익과 사업비차익'은 책임준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임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적립 등)'로 나타낼 수 있음
 -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이므로

- ‘책임준비금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 책임준비금전입액 + 기타
 -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 =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 공시된 회계상의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대략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으로 이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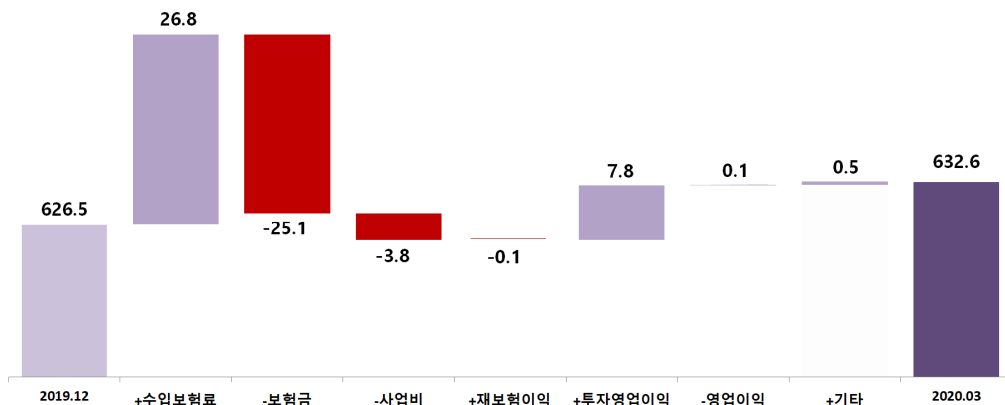
1)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2020년 1/4분기 전분기 대비 6.1조 원 증가하였는데, 보험금과 사업비³⁾ 지출액이 수입보험료를 초과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 확대가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함

- 생명보험산업의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처분이익 확대 등으로 2020년 1/4분기 7.8조 원 흑자를 기록함

〈그림 10〉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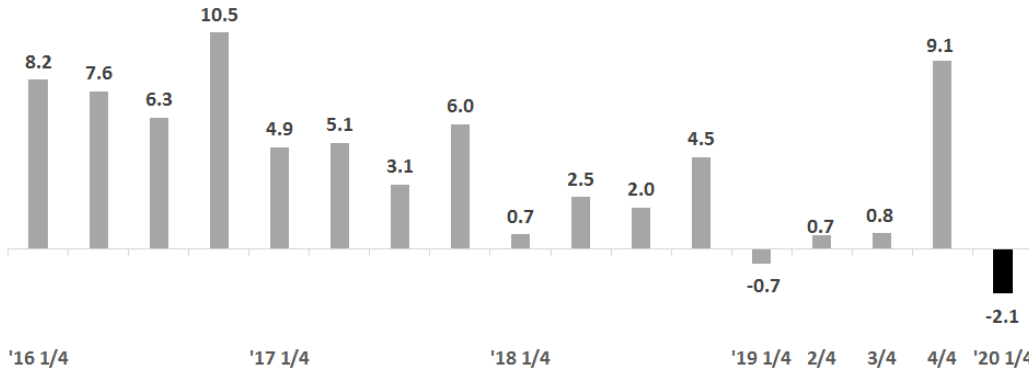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

■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은 2020년 1/4분기 마이너스 전환 (-2.1조 원)됨

〈그림 11〉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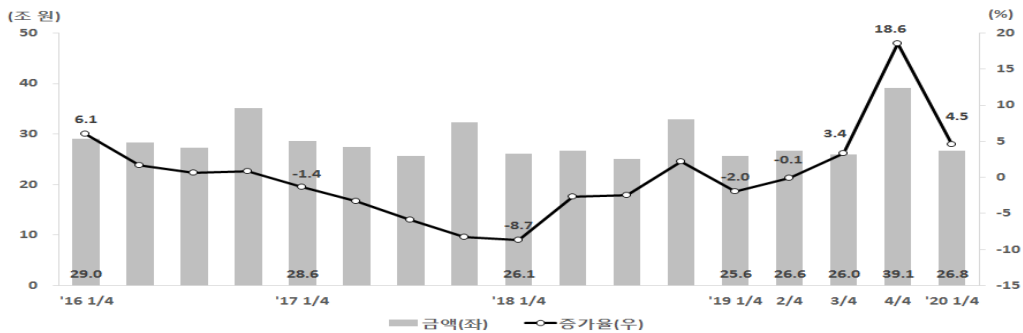
주: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실제 사업비(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26.8조 원을 기록함

○ 특히, 이번 분기에는 감소세를 지속해 온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한 일시납 저축성보험 확대에 소폭 증가함

〈그림 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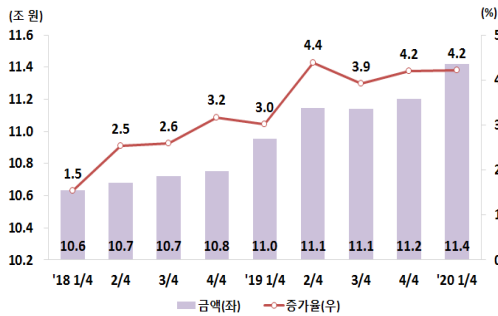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목별로 보면, 2020년 1/4분기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모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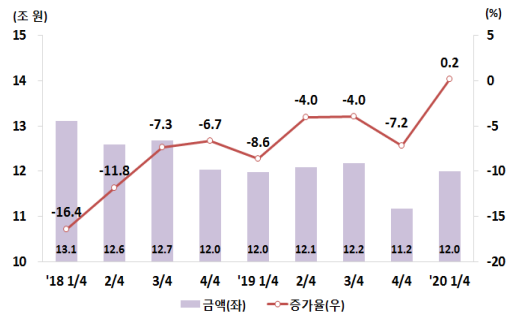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1.4조 원을 기록함
 - 일반중신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예정이율 인하 전 가입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질병보험과 변액중신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시납 저축성보험 신규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12.0조 원을 나타냄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3.1조 원을 나타냈으며,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0.21조 원을 기록함

〈그림 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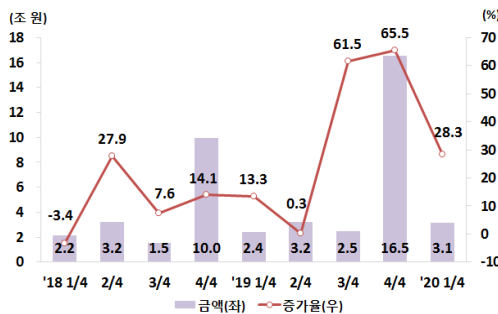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4〉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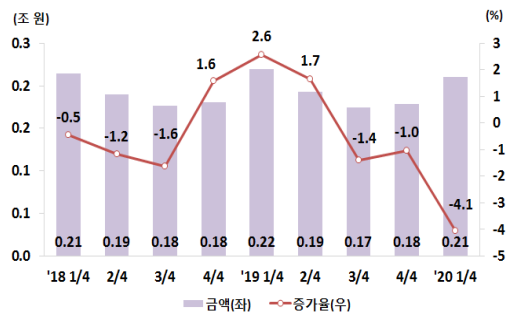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5〉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6〉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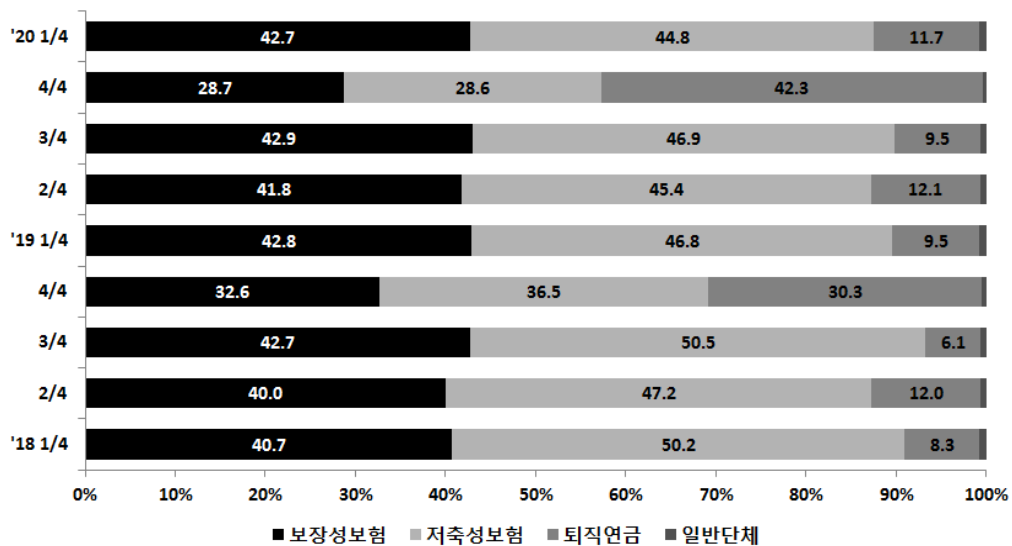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2018년 1/4분기 40.7%에서 2020년 1/4분기 42.7%로 확대되었으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비중도 같은 기간 8.3%에서 11.7%로 확대됨
- 반면, 같은 기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50.2%에서 44.8%로 축소됨

〈그림 17〉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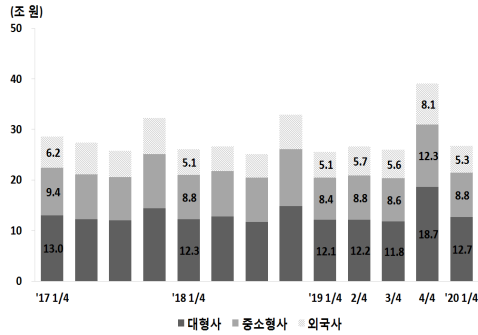


주: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0년 1/4분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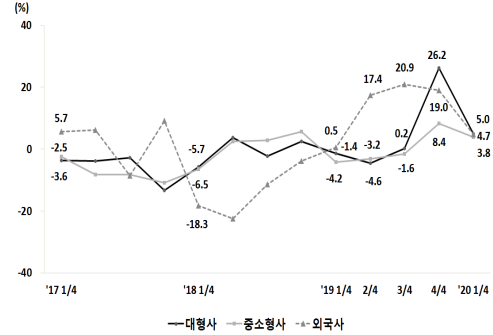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대형사와 중소형사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5.0%, 3.8%로, 두 그룹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세를 보임
- 2020년 1/4분기 외국사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두 자릿수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둔화됨

〈그림 1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9〉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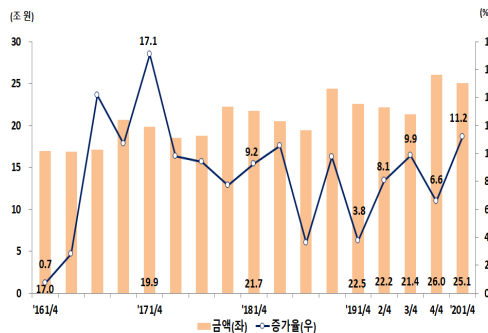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

■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과 사업비는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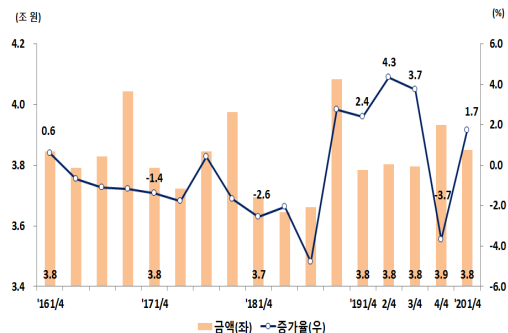
- 생명보험 보험금은 저축성보험 만기 지급이 늘어나 2020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25.1조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사업비는 2020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3.8조 원을 나타냄

〈그림 20〉 보험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1〉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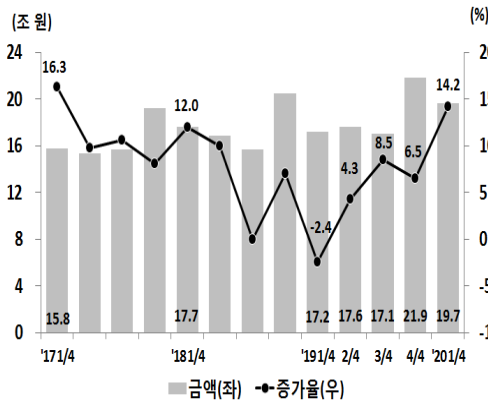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 보험금 가운데 배당금을 제외한 환급금, 사망 및 상해 보험금, 만기 및 퇴직 보험금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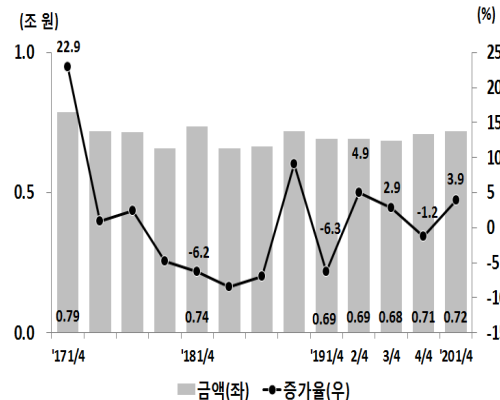
○ 특히, 저축성보험의 만기 환급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실적은 부진하여 저축성보험의 보험영업현금 흐름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22〉 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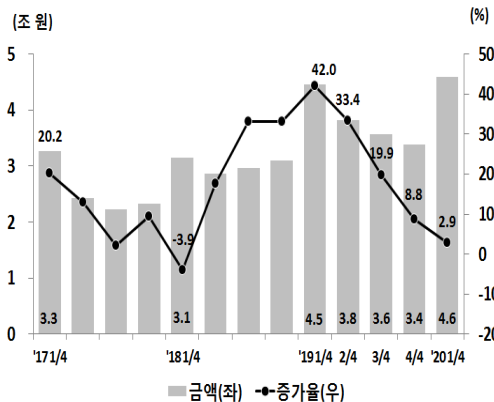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3〉 사망 및 상해 보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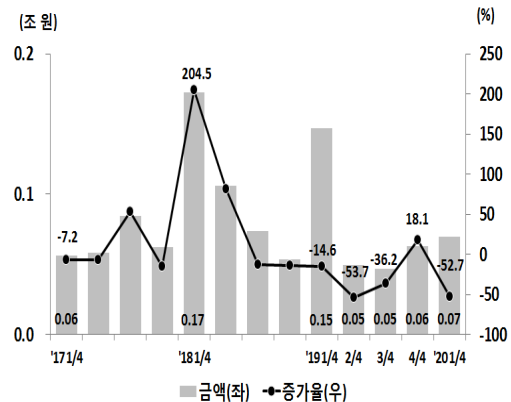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4〉 만기 및 퇴직 보험금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5〉 배당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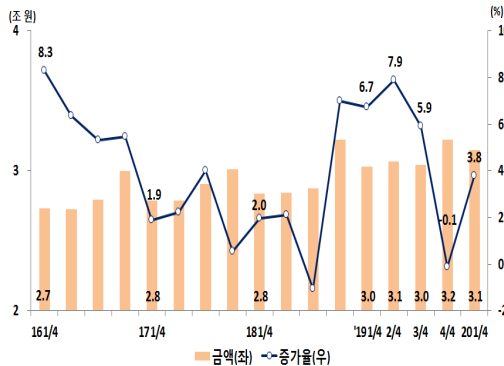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감소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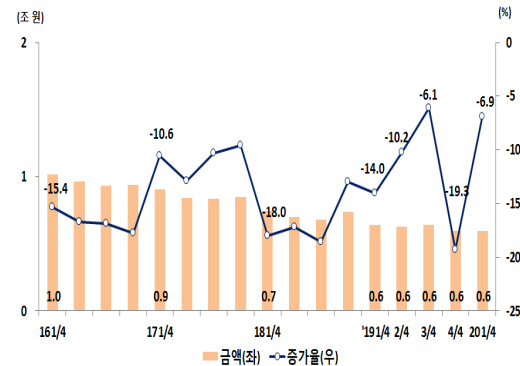
-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2020년 1/4분기 일반중신보험의 신규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3.1조 원을 나타냄
- 반면,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2020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0.6조 원을 기록함

〈그림 26〉 보장성보험 사업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7〉 저축성보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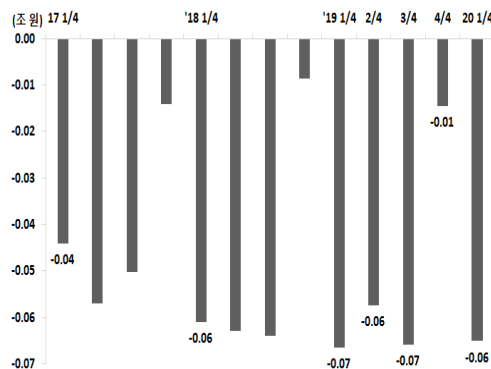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재보험 이익은 0.06조 원 적자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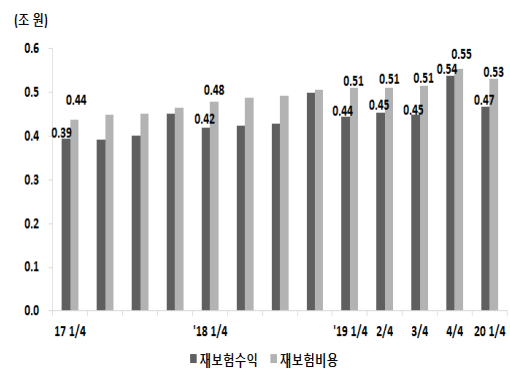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재보험수익과 재보험비용은 각각 0.47조 원과 0.53조 원임

〈그림 28〉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9〉 생명보험 재보험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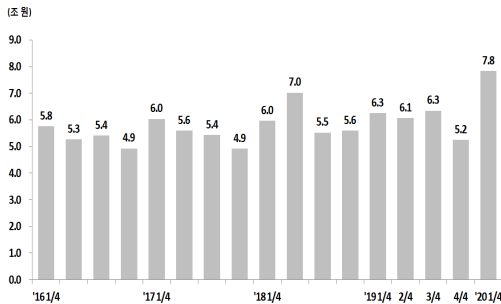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의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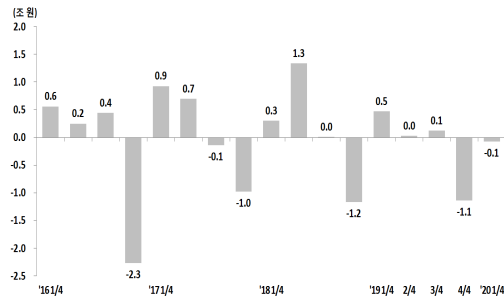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처분이익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 원 증가한 7.8조 원 흑자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영업이익은 보험금 지급과 책임준비금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6조 원 감소한 0.1조 원 적자를 나타냄

〈그림 30〉 투자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1〉 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생명보험산업의 후순위채 규모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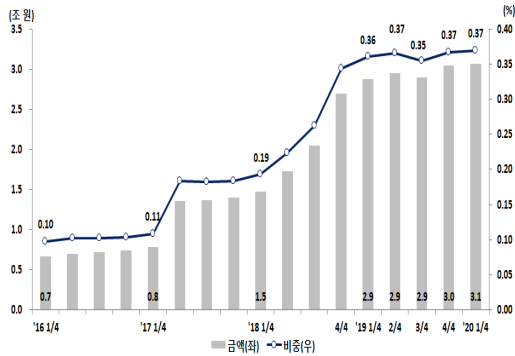
- 생명보험 후순위채 규모는 2016년 1/4분기 0.7조 원에서 2020년 3.1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에서 0.37%로 확대됨
- 이는 자본 확충을 위하여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생명보험 기타부채⁴⁾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확대되고 있음

- 생명보험 기타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 확대로 2019년 1/4분기 4.06%에서 2020년 1/4분기 4.73%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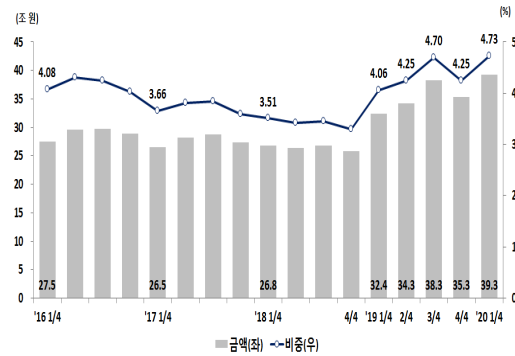
4)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그림 32〉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3〉 기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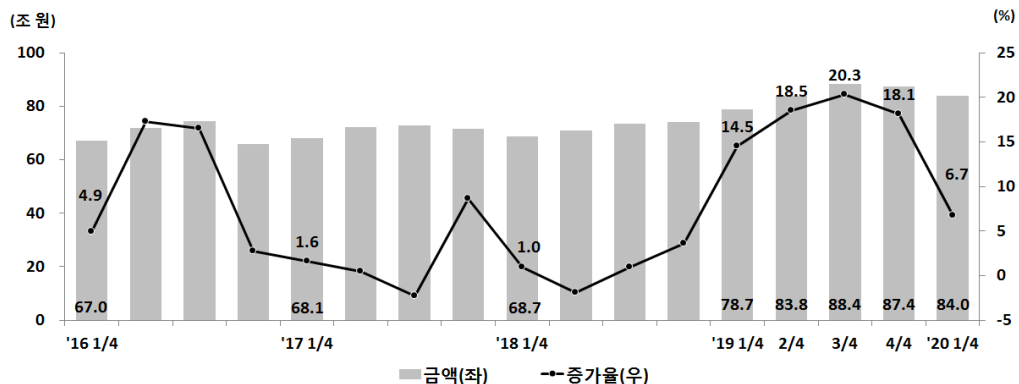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생명보험 자본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의 총자본은 이익잉여금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84.0조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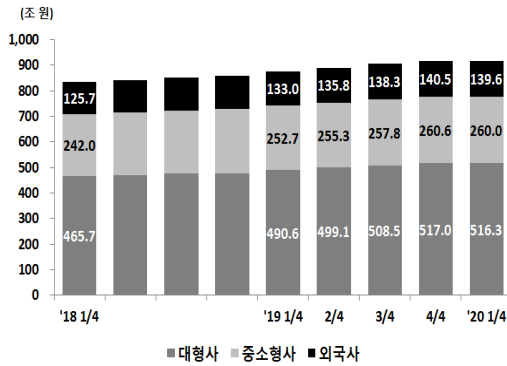
○ 그룹별로 보면, 대형사와 외국사의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5.0%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의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에 그침

〈그림 34〉 생명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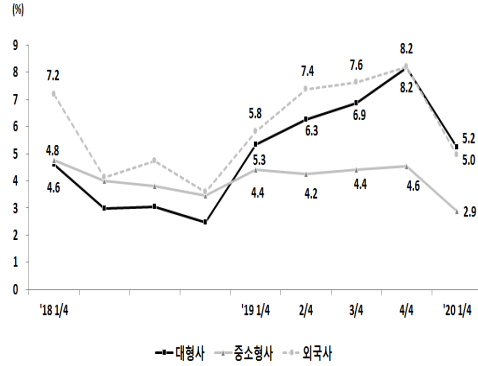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6〉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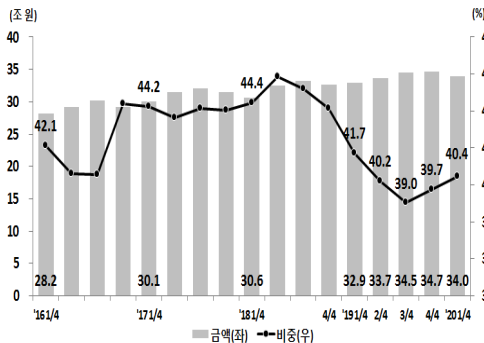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대비 확대된 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대비 축소됨

○ 2020년 1/4분기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대비 각각 0.7%p, 0.3%p, 0.6%p 확대된 40.4%, 4.3%, 18.5%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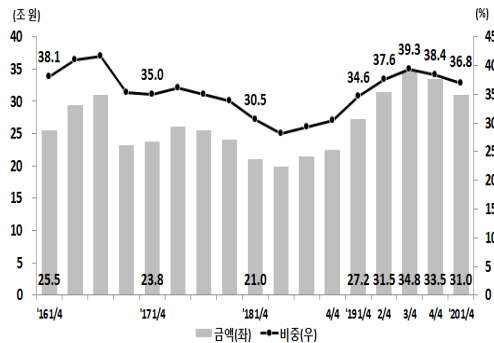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비중은 채권 처분 이후 평가이익이 감소하여 전분기 대비 1.6%p 축소된 36.8%를 나타냄

〈그림 37〉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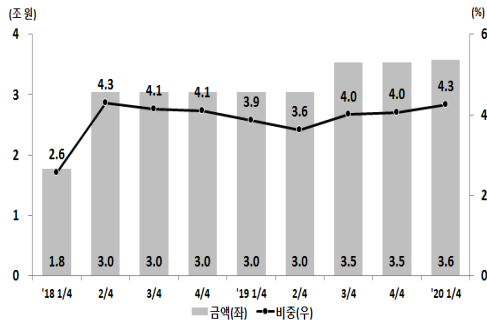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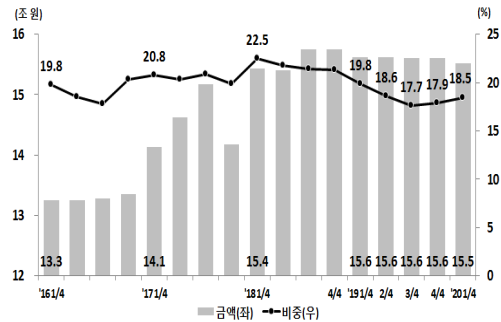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9〉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0〉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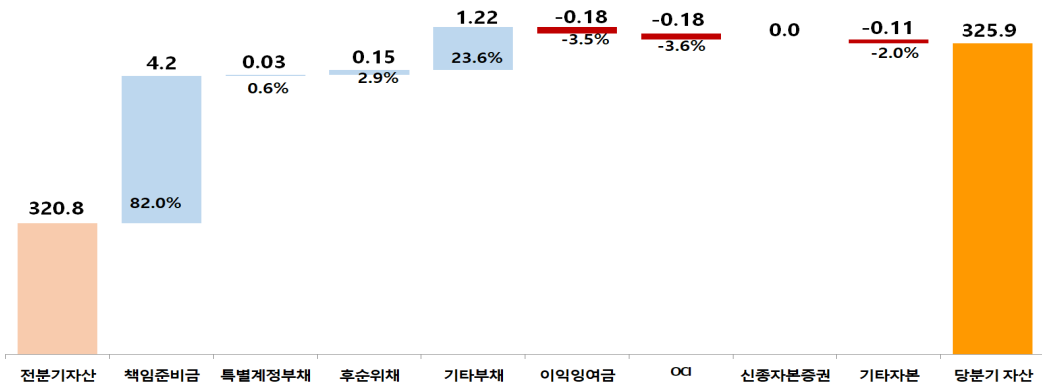
다. 손해보험 성장 요인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5조 1,584억 원 증가하였는데, 책임준비금과 기타부채 순으로 성장에 기여함

- 손해보험의 총자산 증가에 책임준비금 증감은 82.0%로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부채가 23.6% 기여함
- 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과 이익잉여금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여 총자산 변화에 -3.6%, -3.5% 기여함

〈그림 41〉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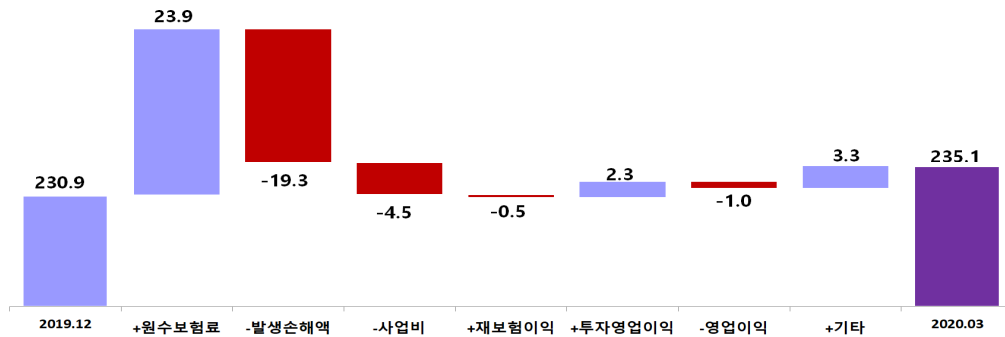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 2020년 1/4분기 책임준비금은 전분기 대비 4조 2,298억 원 증가함
 -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⁵⁾ 지출을 차감한 금액은 856억 원임
 - 투자영업이익 증가는 책임준비금 증가에 2조 3,164억 원 기여함

〈그림 42〉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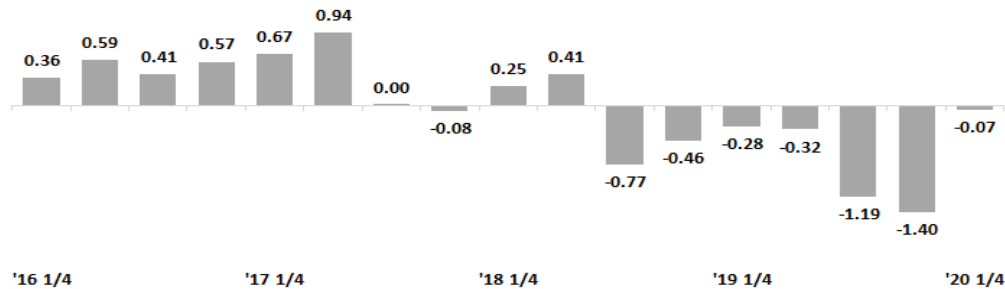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은 2018년 3/4분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 1/4분기에는 -65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분기에 비해서는 완화됨

〈그림 43〉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주: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

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퇴직연금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3.9조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질병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신규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13.8조 원을 기록함

-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률⁶⁾이 강화되어 운전자보험 확대 추세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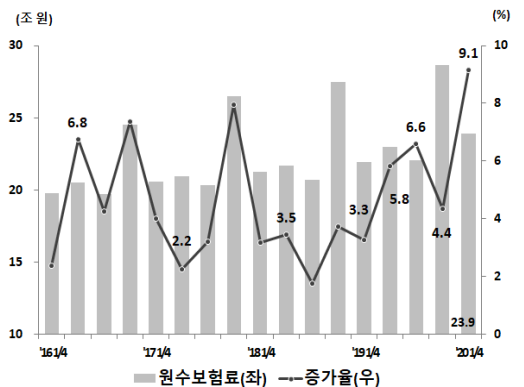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4.7조 원을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기타특종보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2.9조 원을 기록함

- 특히, 천리안 2B호 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해상보험⁷⁾이 확대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원수보험료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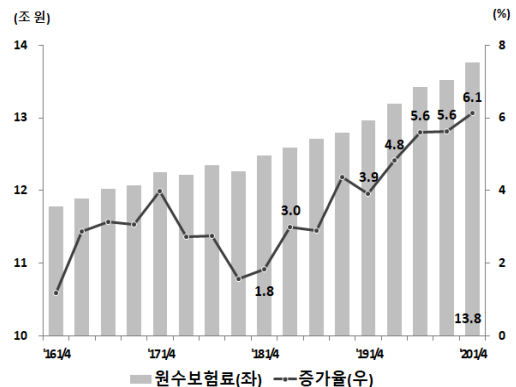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한 0.8조 원을 기록한 반면,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한 1.8조 원을 나타냄

〈그림 44〉 원수보험료 추이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5〉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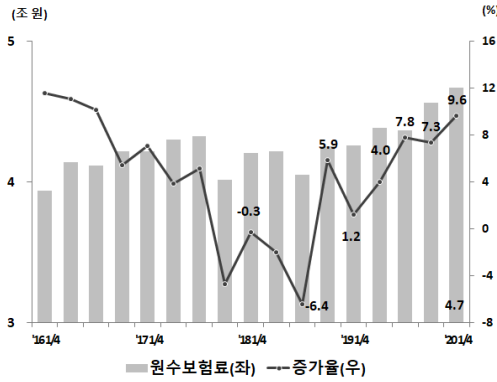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6) 20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발생 시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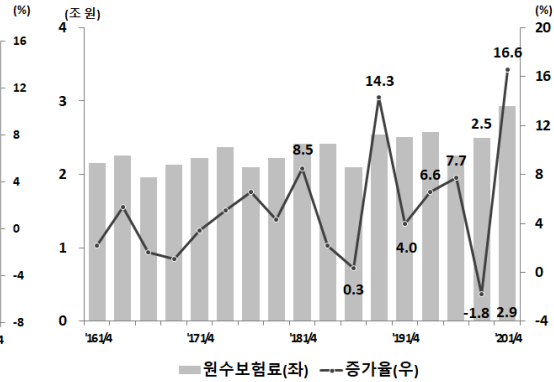
7) 우주개발 또는 인공위성과 관련한 담보는 해상보험에 포함됨

〈그림 46〉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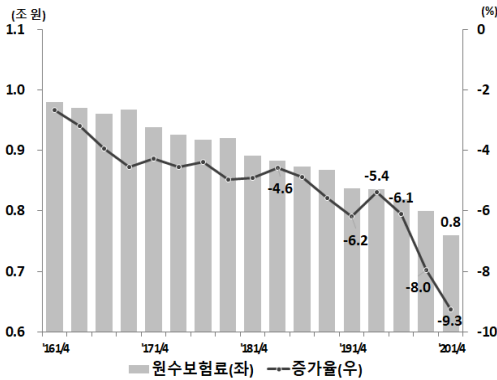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7〉 일반손해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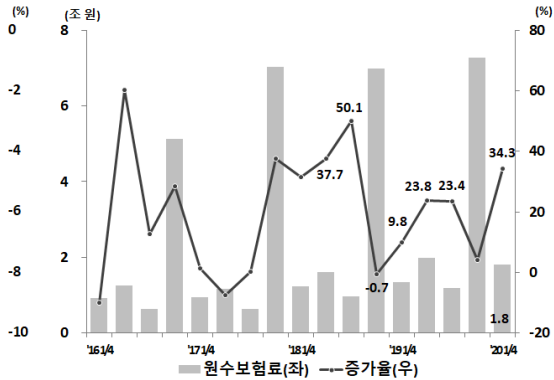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8〉 개인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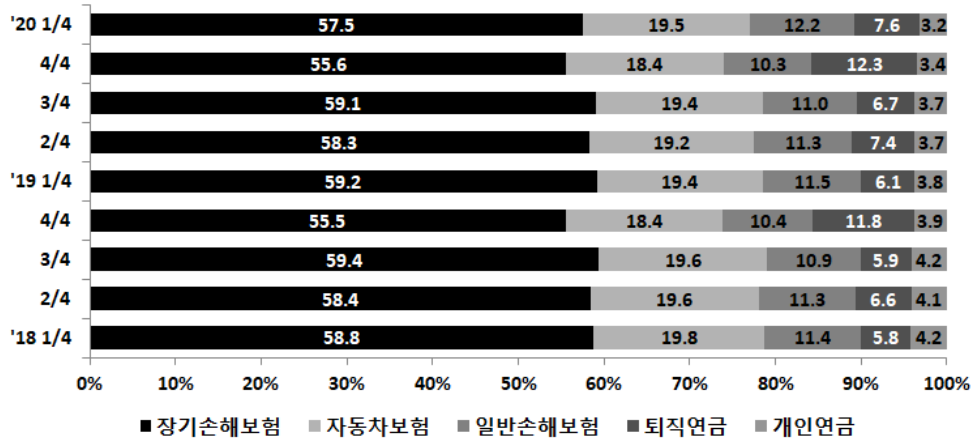
〈그림 49〉 퇴직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의 경우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비중이 확대되고 개인연금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비중은 2018년 1/4분기 5.8%에서 2020년 1/4분기 7.6%까지 확대된 반면,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비중은 같은 기간 4.2%에서 3.2%로 축소됨
 -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각각 19.5%, 12.2%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각각 0.1%p, 0.7%p 확대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5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전년 동기에 비하여 비중이 1.7%p 축소됨

〈그림 50〉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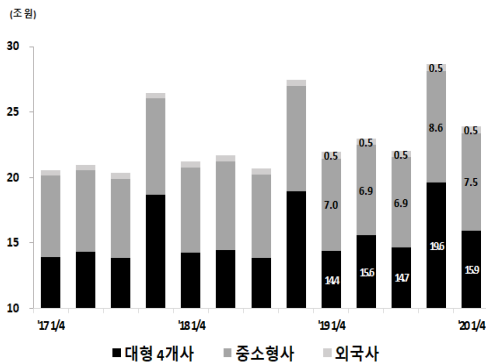


주: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0년 1/4분기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0.49%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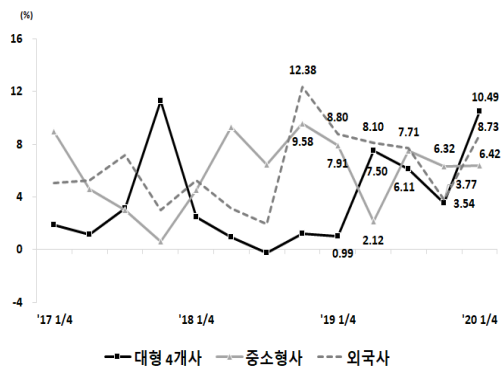
○ 또한 외국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도 8.73%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중소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6.4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그림 51〉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2〉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0%, 4.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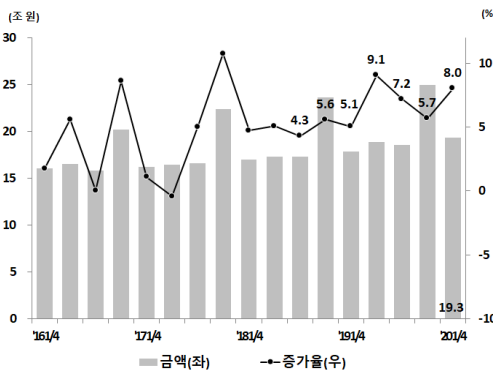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은 정비요금 인상 및 취업가능연한 상향 등으로,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은 보험사고 증가로 모두 보험금 지급 규모가 확대됨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외의 대형사고⁸⁾ 발생이 증가함

○ 손해보험 전체 사업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사업비가 판매경쟁 심화로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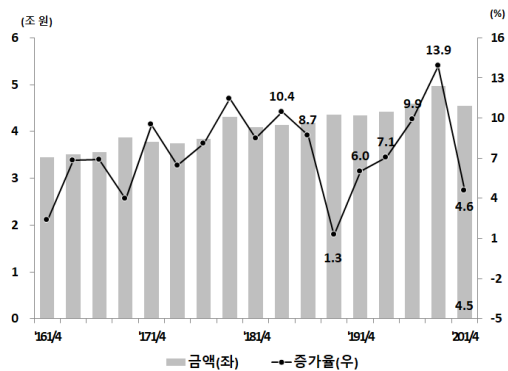
- 다만,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사업비는 감소하였으며, 자동차보험 사업비도 비대면 채널 확대에 의해 감소함

〈그림 53〉 발생손해액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4〉 사업비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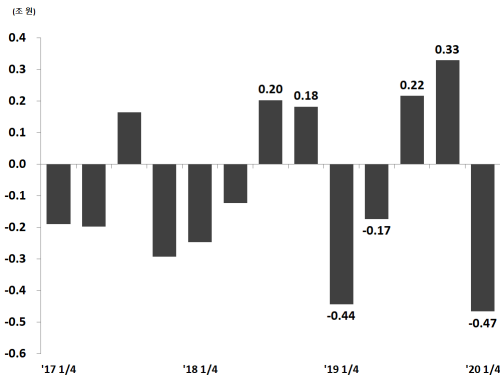
다) 재보험 이익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0.47조 원 적자를 기록함

○ 이는 재보험 비용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재보험 수익도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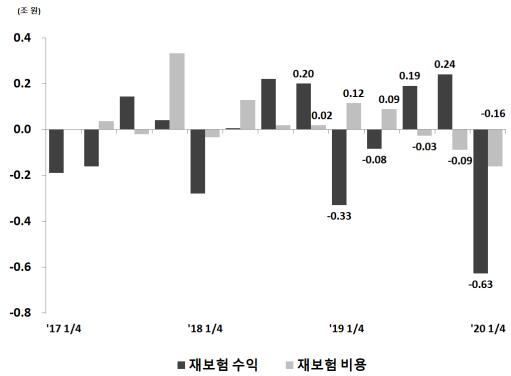
8) 2020년 3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폭발 및 화재 사고를 포함함

〈그림 55〉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6〉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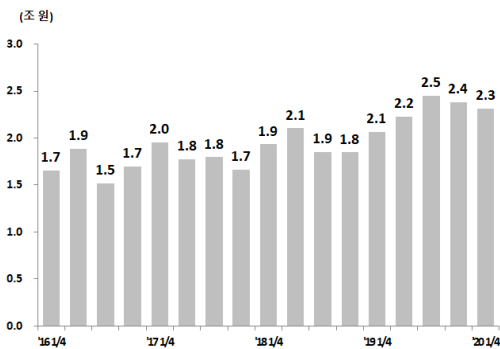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은 2.3조 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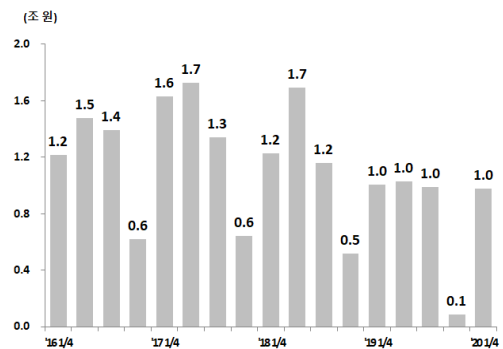
- 채권 처분이익과 이자수익 확대로 투자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0.2조 원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그림 57〉 투자영업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8〉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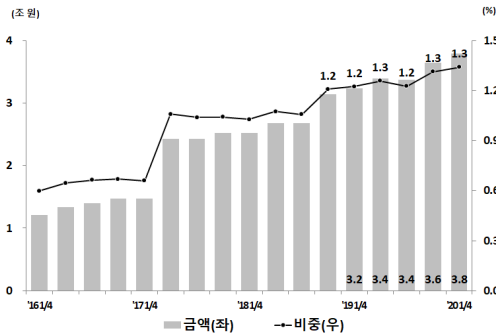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의 총부채 가운데 후순위채와 기타부채⁹⁾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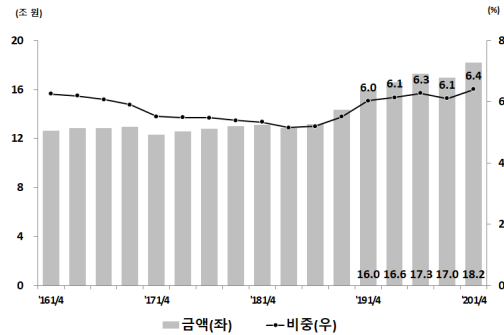
- 후순위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6조 원 증가한 3.8조 원을,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1%p 확대된 1.3%를 기록함
- 기타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2.2조 원 증가한 18.2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4%로 전년 동기 대비 0.4%p 확대됨

〈그림 59〉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0〉 기타부채



주: 1) 기타부채는 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값임
2)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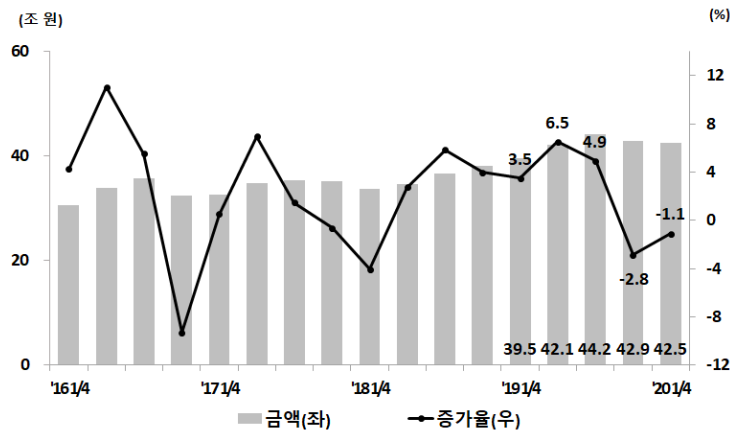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총자본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축소 등으로 전분기 말 대비 1.1% 감소한 42.5조 원을 기록함

- 일부 대형사의 채권 매각이익 실현으로 인하여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¹⁰⁾이 축소되었으며, 대형사 총자본은 전분기 말 대비 2.0% 감소함
-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 총자본은 금리 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확대로 각 각 전분기 말 대비 13.8%, 1.7% 증가함

9)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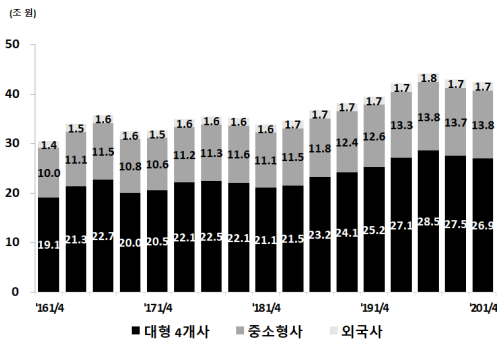
10)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에 포함됨

〈그림 61〉 손해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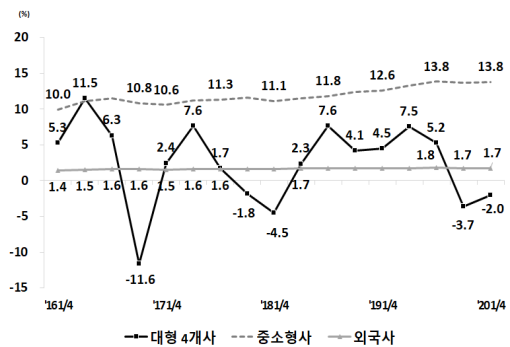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2〉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3〉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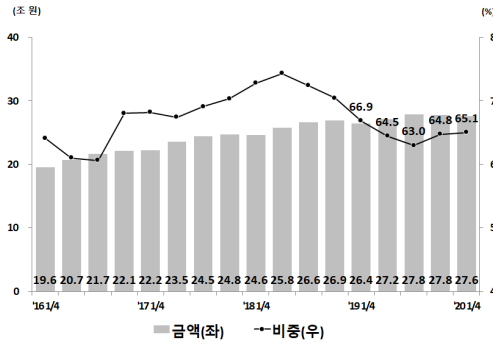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말 대비 축소되었으며, 이는 일부 대형사의 채권 매각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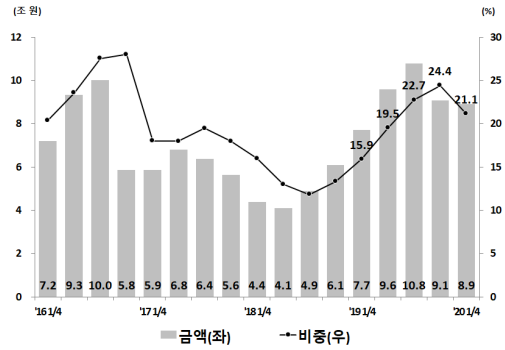
○ 반면, 총자본 가운데 이익잉여금과 신종자본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말 대비 확대됨

〈그림 64〉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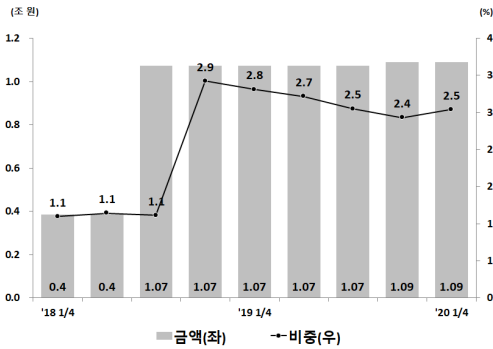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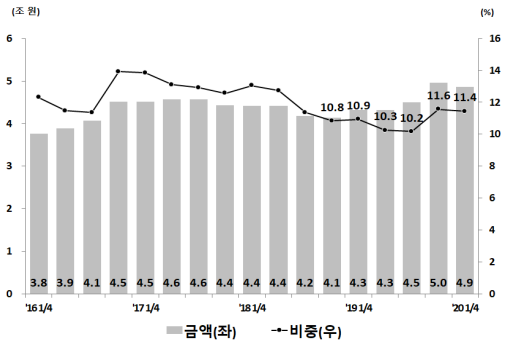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6〉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7〉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수익성

가. 당기순이익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3% 감소한 0.8조 원 흑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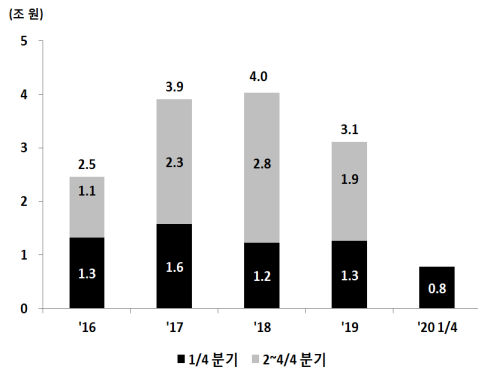
- 주가 하락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전입액 증가로 보험영업손실은 확대된 반면, 금융 자산 처분이익 확대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은 증가함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0.7조 원 흑자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 처분이익 확대와 이자수익 증가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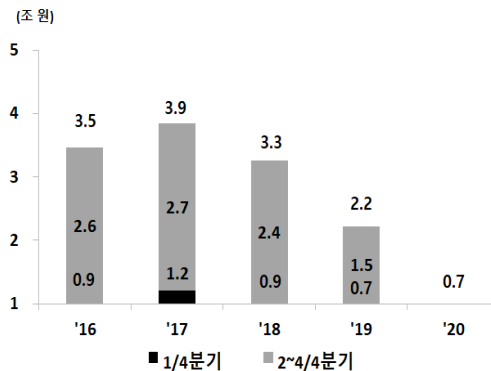
- 그러나 보험영업에서의 손실이 장기손해보험 판매경쟁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화재 등 고액사고¹¹⁾의 증가로 인해 확대됨

〈그림 68〉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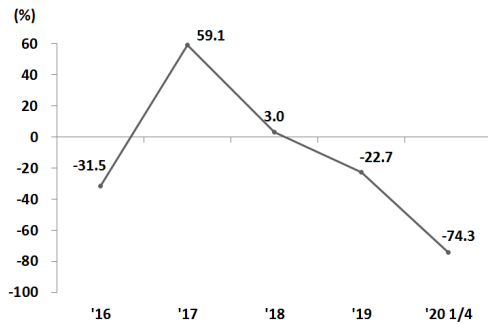
〈그림 69〉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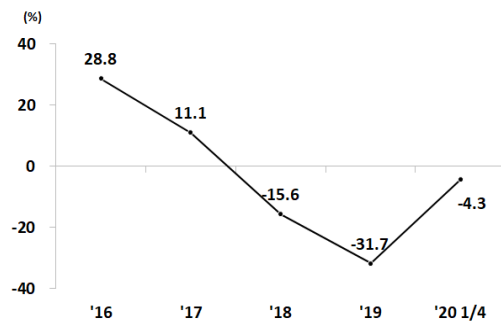
11) 2020년 3월에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함

〈그림 70〉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1〉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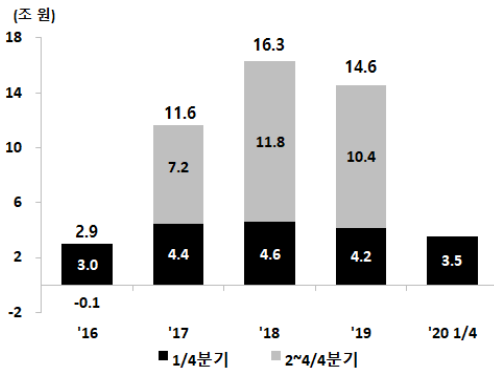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0년 1/4분기 은행 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한 3.5조 원을, 증권 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4% 감소한 0.5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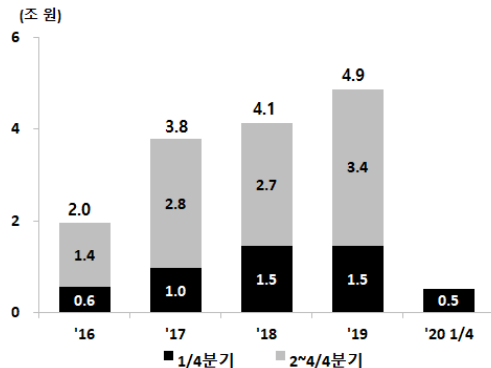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은행과 증권업 모두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그림 72〉 은행 당기순이익



주: 1)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
2)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015년 6월 이후 합병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3〉 증권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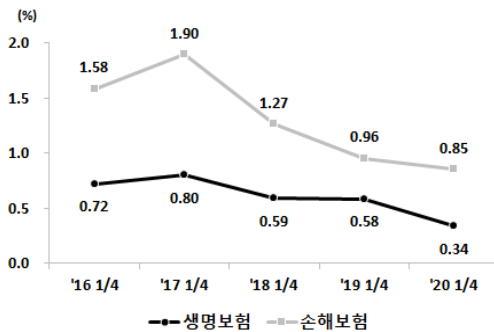
주: 노무라, 다이와, 리딩, 맥쿼리, 신영, 코리아에셋은 3월 말 결산이므로 결산시점을 기간 맞춤함
자료: 금융감독원

나. ROA, ROE

■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ROA와 ROE 모두가 당기순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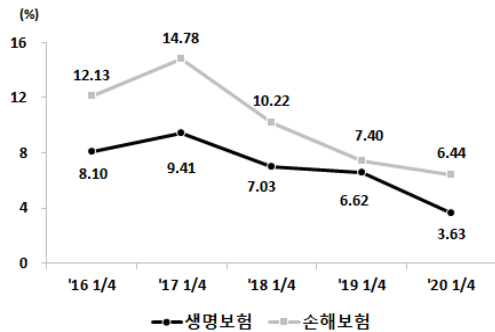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ROA는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24%p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산업의 ROA는 0.85%로 전년 동기 대비 0.11%p 하락함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 대비 2.99%p 하락한 3.63%를, 손해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 대비 0.96%p 하락한 6.44%를 나타냄

〈그림 74〉 보험산업 ROA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5〉 보험산업 RO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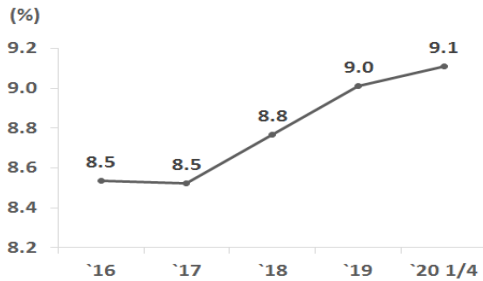
다. 보험영업이익의 관련 지표

1) 생명보험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해지율, 사업비율, 보험금 지급률은 모두 2019년 말 대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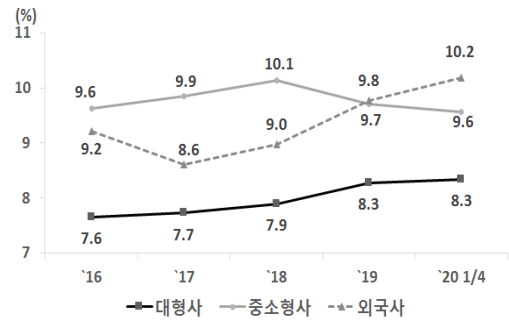
- 해지율은 가계부채 부담 확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4분기에는 9.1%를 기록함
- 사업비율은 2019년 말 대비 1.3%p 상승한 14.4%를 나타냈으며, 이는 마케팅 이슈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4월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짐
-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 증가로 2020년 1/4분기 93.6%를 나타냈으며, 연초에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계절적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임

〈그림 76〉 생명보험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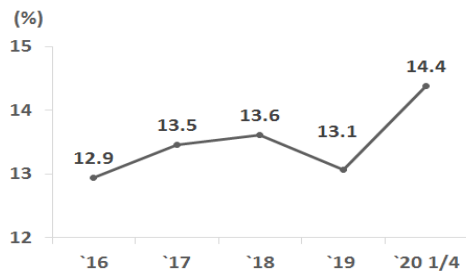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2020년 1/4분기는 연율화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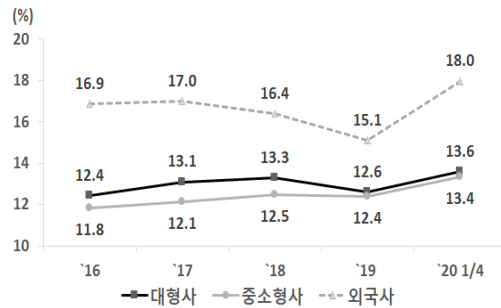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2020년 1/4분기는 연율화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8〉 생명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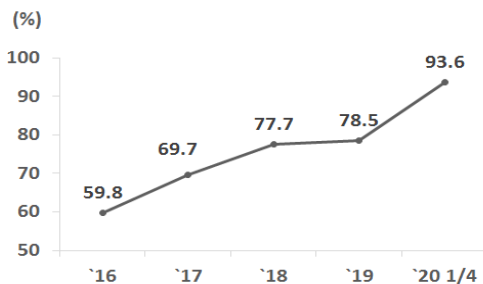
주: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9〉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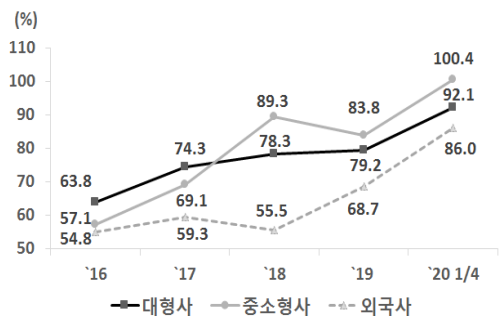
주: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0〉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주: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금 지급률



주: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반 상승으로 전년 말보다 0.7%p 높아진 106.4%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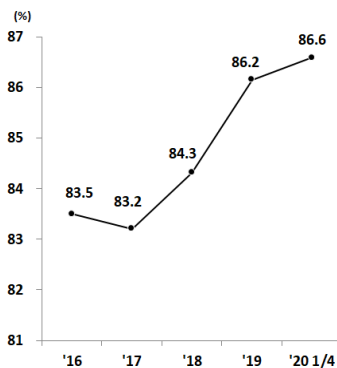
○ 손해보험산업의 손해율은 실손의료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증가로 전년 말 대비 0.4%p 상승한 86.6%를 나타냄

- 다만,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영향으로 전년 말에 비해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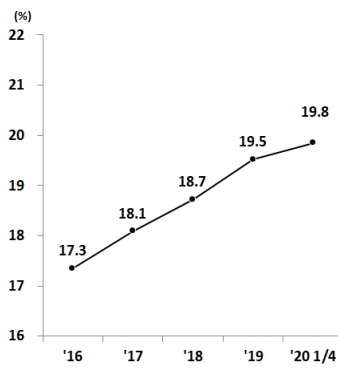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사업비율은 GA를 중심으로 한 장기 보장성보험의 판매 경쟁 확대로 전년 말 대비 0.3%p 상승한 19.8%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24.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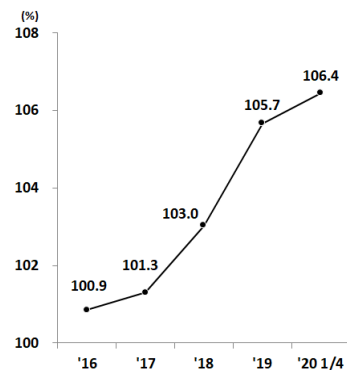
〈그림 82〉 손해보험 손해율



〈그림 83〉 손해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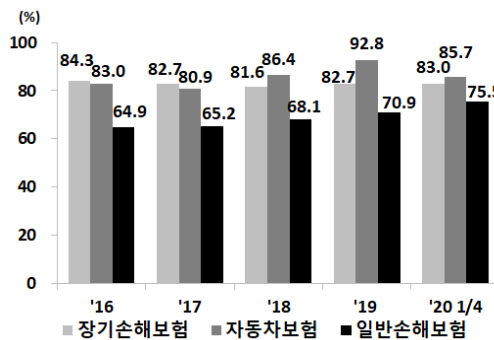


〈그림 84〉 손해보험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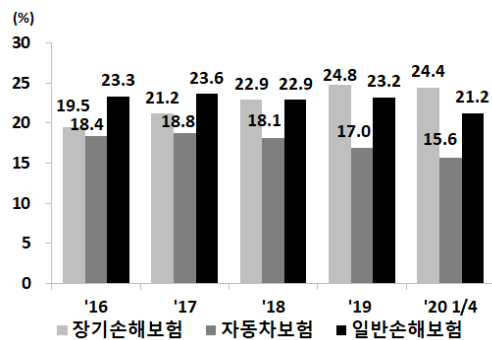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5〉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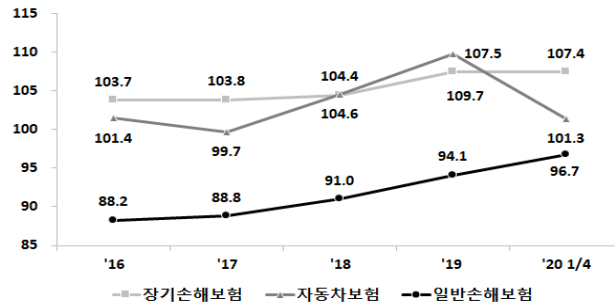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6〉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7〉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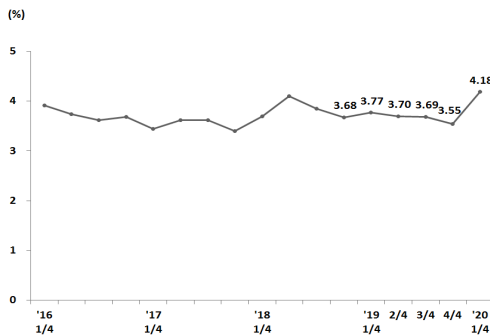
라. 투자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운용자산이익률

■ 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금융자산 처분이익 확대에 인하여 상승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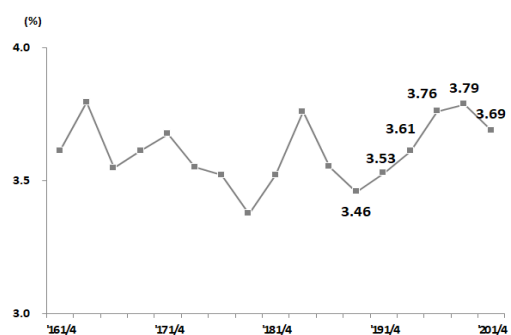
-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2020년 1/4분기 4.18%로 전년 동기 대비 0.41%p 상승하였으며, 이는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금융자산 처분이익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2020년 1/4분기 3.69%로 전년 동기 대비 0.16%p 상승함

〈그림 88〉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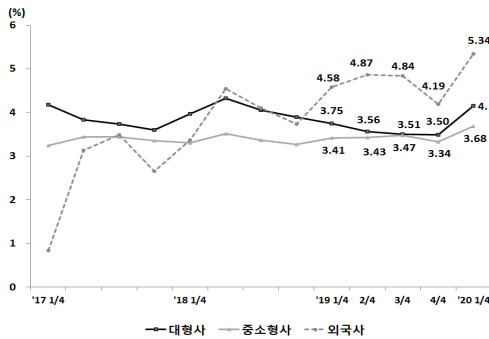
〈그림 89〉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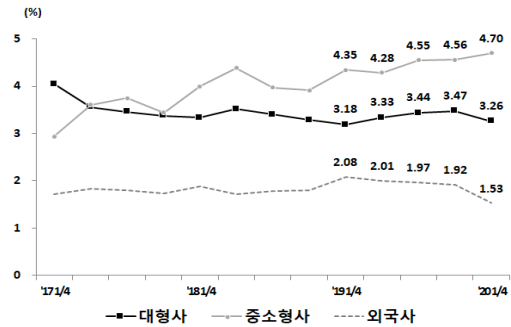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의 운용자산이익률 상승세가, 손해보험의 경우 중소형사 운용자산이익률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그림 9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1〉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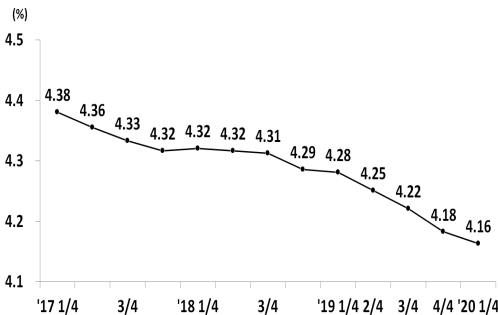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

■ 생명보험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2017년 1/4분기 4.38%에서 2020년 1/4분기 4.16%까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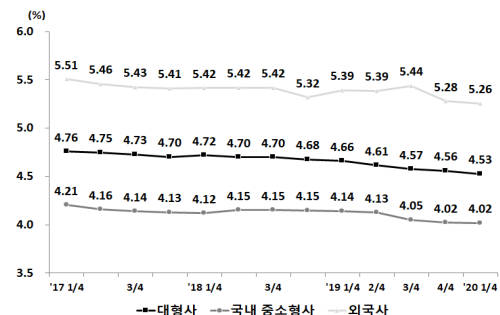
- 이번 분기에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가 4%대 초반으로 하락한 반면, 운용자산이익률은 채권 매각이익 상승으로 4%대 초반으로 상승함
- 그룹별로 보면, 모든 그룹에서 적립금 평균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높은 외국사의 적립금 평균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소형사의 적립금 평균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92〉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주: 평균 금리 = (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 적용 금리수준의 중간 값) / 총 보험료 적립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마. 이익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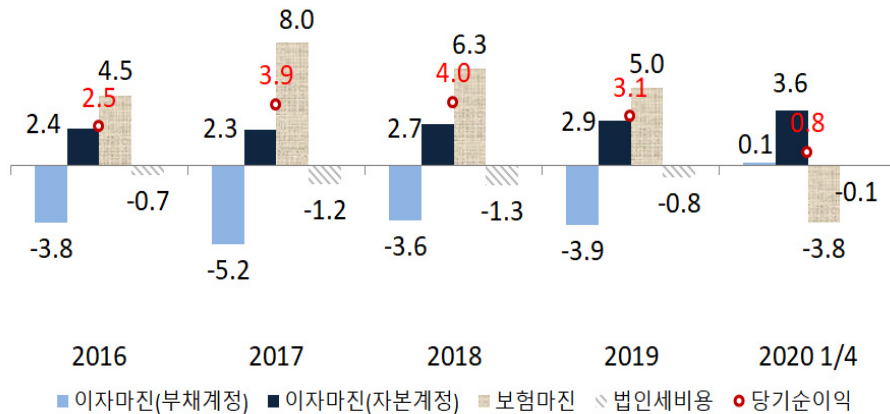
1)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 이자마진은 3.7조 원이 발생하였으나 보험역마진도 -3.8조 원으로 나타나, 전체 당기순이익은 0.8조 원 흑자를 나타냄

- 자본계정 이자마진은 운용자산이익률 상승 등으로 3.6조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계정 이자마진은 운용자산이익률 상승과 보험부채적립이율 하락으로 0.1조 원을 나타냄
- 보험마진은 보험금과 사업비 지급 증가 등으로 -3.8조 원을 나타냄

〈그림 94〉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주: 1) 이자마진(부채계정) = 책임준비금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2) 이자마진(자본계정) = 자본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3) 보험마진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이자마진(부채계정) - 이자마진(자본계정)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가) 당기순이익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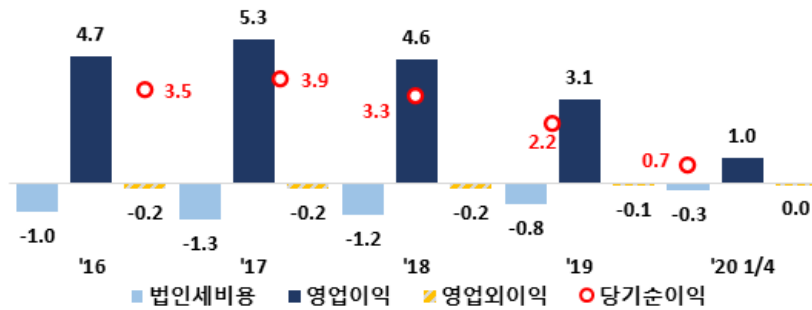
■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 가운데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크지만, 영업이익이 축소되고 있음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0.7조 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1.0조 원 흑자, 영업외이익은 0.03조 원 적자를 기록함

- 손해율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축소됨에 따라 당기순이익 역시 감소 추세를 보임

〈그림 9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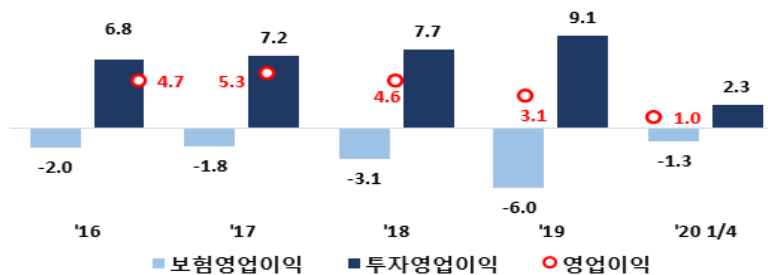
나) 영업이익 구성

- 손해보험산업 영업이익은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보험영업이익 적자를 투자영업이익 흑자가 보전하고 있음

- 2020년 1/4분기 영업이익은 1.0조 원이었으며, 보험영업에서는 1.3조 원 손실을, 투자영업에서는 2.3조 원 이익을 기록함
- 보험영업에서의 손실은 손해율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투자영업에서의 이익은 채권 처분이익 및 이자수익 확대 등으로 증가함

〈그림 96〉 손해보험 영업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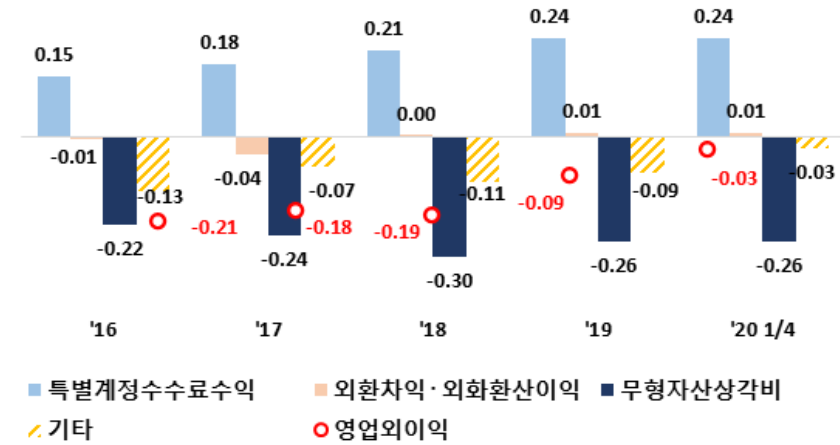
다) 영업외이익 구성

■ 손해보험산업 영업외이익 중 특별계정 수수료 수익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2020년 1/4분기 영업외이익은 0.03조 원 적자를 나타냈으며, 이 가운데 특별계정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무형자산상각비도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97〉 손해보험 영업외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주: 1) 외환차익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 회수 및 외화부채 변제 시 발생한 환차익을 의미함

2) 외화환산이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익을 의미함

3) 무형자산상각비는 개발비,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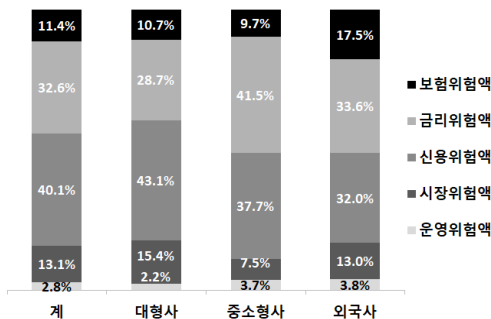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리스크¹²⁾

■ 2020년 3월 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산업별·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리스크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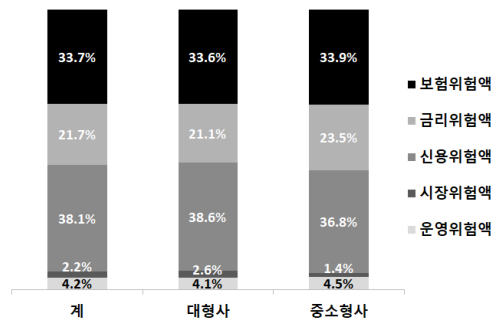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40.1%), 금리위험(32.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신용위험(38.1%), 보험위험(33.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금리위험이, 손해보험회사는 신용위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9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9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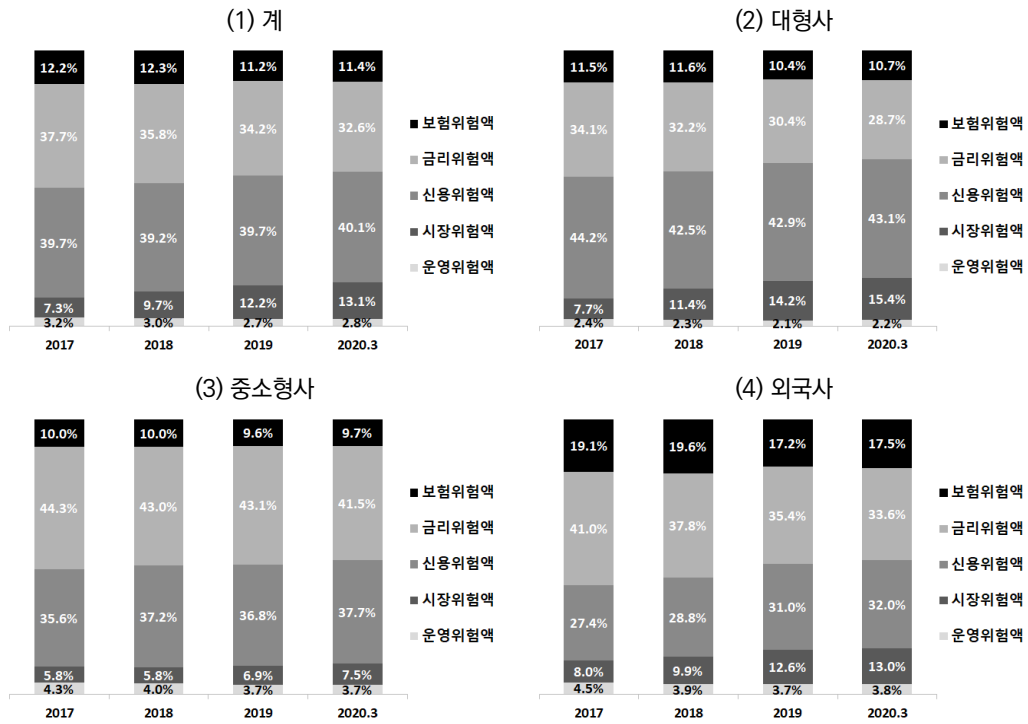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 2020년 3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금리위험을 제외하고 보유 위험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시장위험 비중이 2019년 말 대비 0.9%p로 가장 크게 증가함

- 대형사의 경우 시장위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1.2%p)하였으며,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신용위험 비중이 각각 0.9%p, 1.0%p로 크게 증가함
- 한편, 금리위험 비중의 경우 외국사(-1.8%p), 대형사(-1.7%p), 중소형사(-1.6%p) 순으로 전년 말 대비 모두 감소함

12) 본장은 반기마다 자세히 공시되는 위험관리 부문 데이터를 제외한 보유 위험액을 중심으로 2019년 9월 말 공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그림 10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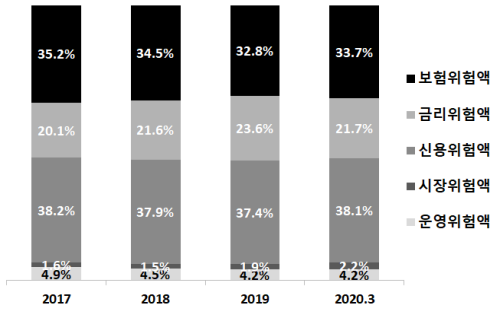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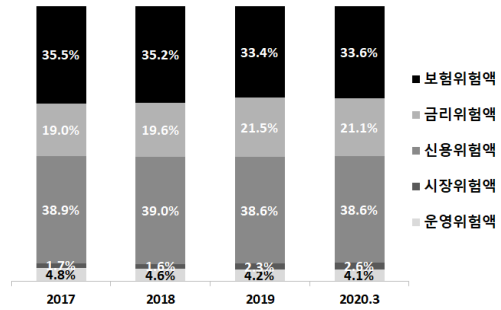
- 2020년 3월 손해보험회사의 보유 위험 중 금리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말 대비 1.9%p 감소한 반면, 보험위험과 신용위험, 시장위험 비중은 각각 0.9%p, 0.7%p, 0.3%p 증가함
- 중소형사의 경우 금리위험 비중이 전년 말 대비 크게 감소(-5.4%p)한 반면, 보험위험과 신용위험 비중은 각각 2.6%p, 2.3%p 증가함

〈그림 101〉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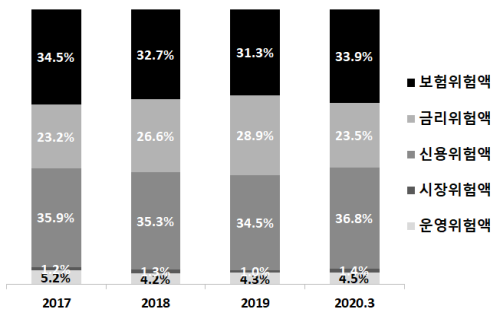
(1) 계



(2) 대형사



(3) 중소형사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4. 시장경쟁

가. 시장점유율

1)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 2020년 1/4분기 그룹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전년 동기와 유사한 비중을 유지함

- 대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각각 32.7%, 19.9%로 모두 전년 동기와 유사한 비중을 나타냄

■ 그룹별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20년 1/4분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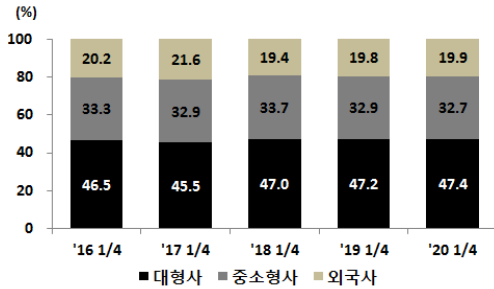
- 이는 일부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퇴직연금, 보장성보험,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신규 판매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¹³⁾는 1,0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하였으며,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078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상승함

- 특히, 이번 분기에는 대형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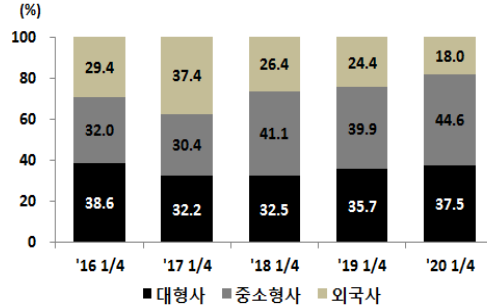
13)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그림 102〉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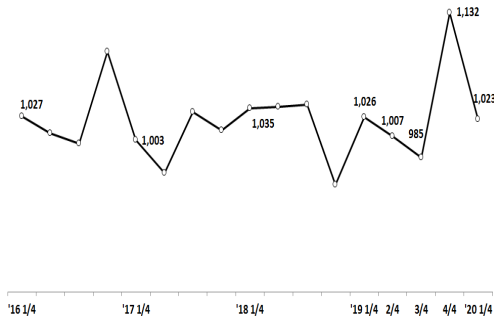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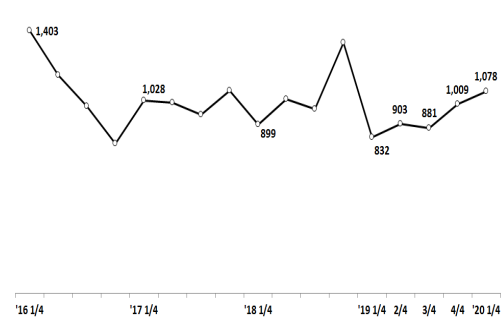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5〉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그룹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되고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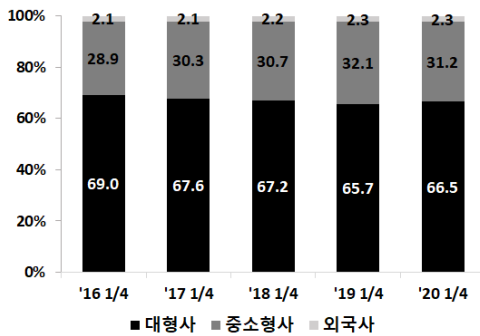
○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2019년 1/4분기 65.7%에서 2020년 1/4분기 66.5%로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32.1%에서 31.2%로 축소됨

■ 장기손해보험의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20년 1/4분기 대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고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됨

- 대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20년 1/4분기 66.0%로 전년 동기 대비 22.1%p 확대됨
- 반면, 중소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20년 1/4분기 32.7%로 전년 동기 대비 22.0%p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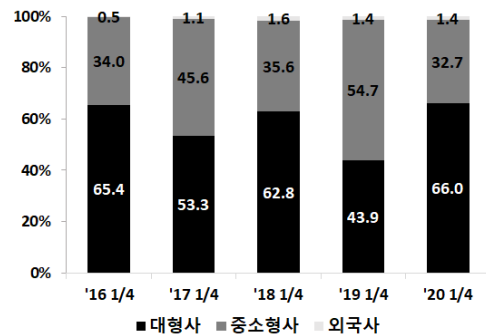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3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하였으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507로 전년 동기 대비 628 하락함

〈그림 10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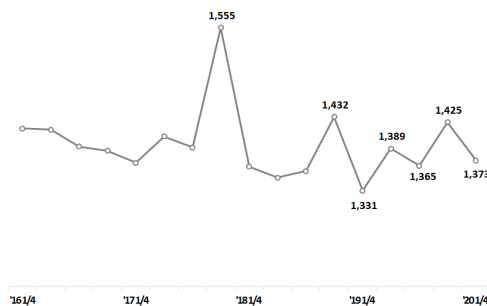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7〉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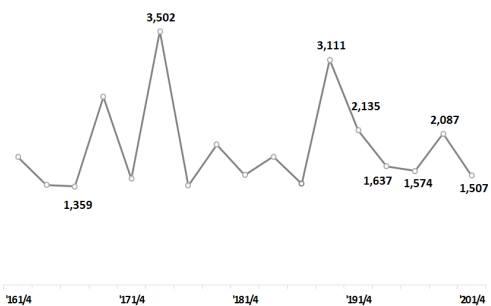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지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9〉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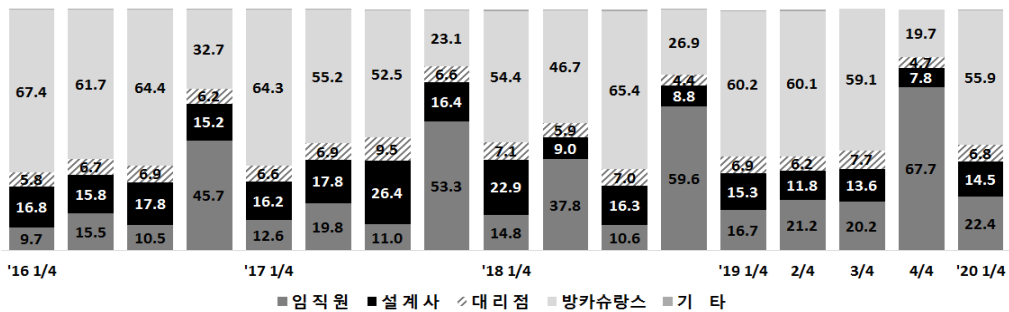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판매채널

1) 생명보험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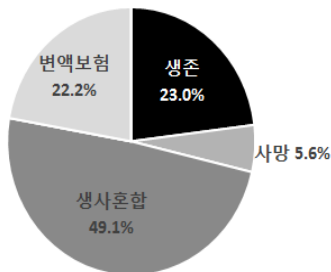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생명보험 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임직원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증가함
-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55.9%로 전년 동기 대비 4.3%p 감소하였고, 임직원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22.4%로 전년 동기 대비 5.7%p 증가함
 - 이는 임직원 채널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임¹⁴⁾

〈그림 110〉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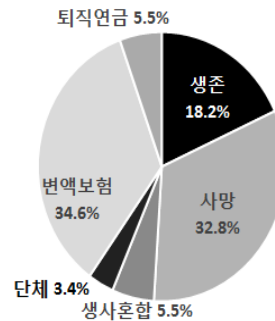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1〉 방카슈랑스 채널 종목별 비중 (2020년 1/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2〉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2020년 1/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4) 보험회사의 비대면 채널 실적은 임직원 채널 실적에 포함되며, 대리점 채널의 경우도 비대면 채널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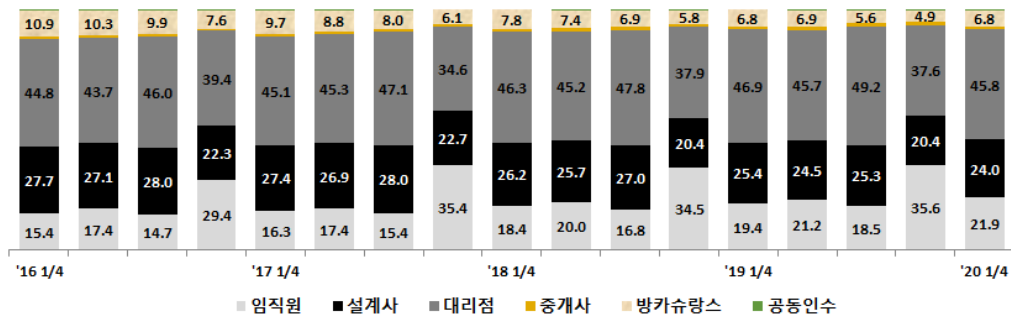
2) 손해보험 판매채널

■ 2020년 1/4분기 손해보험의 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 임직원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확대된 반면, 대리점 및 설계사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축소됨

- 임직원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21.9%로 전년 동기 대비 2.5%p 증가한 반면, 대리점과 설계사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45.8%, 24.0%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p, 1.4%p 감소함
- 퇴직연금 확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 증가가 임직원 채널 확대의 주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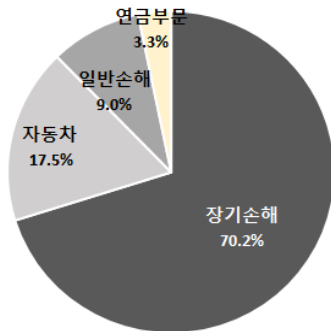
〈그림 113〉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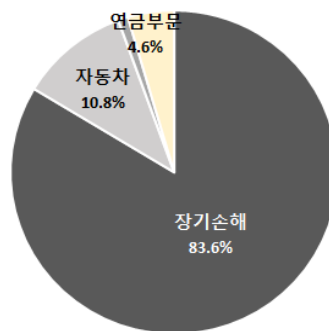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4〉 대리점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2020년 1/4분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5〉 설계사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2020년 1/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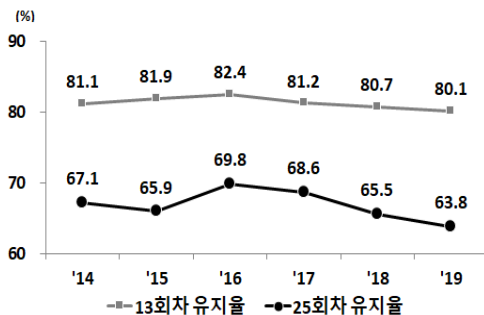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보험계약 관리¹⁵⁾

■ 2019년 생명보험의 13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전년에 비하여 소폭 하락한 반면, 손해보험의 13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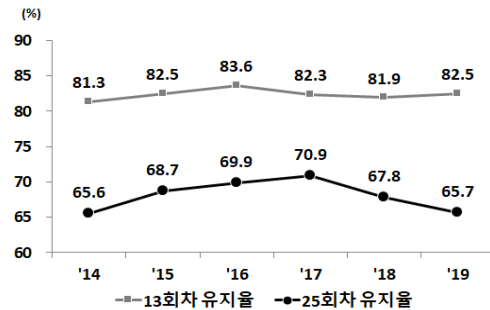
○ 2019년 25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에 비하여 하락함

〈그림 116〉 생명보험 계약유지율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그림 117〉 손해보험 계약유지율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 2019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모두 전년에 비하여 상승함

○ 생명보험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2017년과 2018년에 하락하였으나 2019년에 다시 상승하였으며, 손해보험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도 2018년에 하락 후 2019년에 상승 전환함

15) 보험계약 관리 관련 공시는 다른 보험회사의 경영공시 시점과 다르며, 본고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말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윤아·한성원 2020.1
 2020-2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 김세중·김혜란 2020.4
 2020-3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6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중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호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 2020-2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김동겸 2020.3
- 2020-3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 이상우 2020.6
- 2020-5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강성호·정인영 2020.7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유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 2018-3 주유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 2020-1 공제보험 현황 조사 / 최창희·홍민지 2020.4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 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20 / KIRI, 2020.8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 KIRI, 2020.2
제3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9/ KIRI, 2020.5
제3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20/ KIRI, 2020.9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 2020-1 코로나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4
- 2020-2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20.6
- 2020-3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20.7
- 2020-4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 조용운 2020.8

- 2020-5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 김해식·노건엽·황인창 2020.9
 2020-6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 - 사회안전망 / 정성희, 송윤아, 강성호, 기승도, 장윤미 2020.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해외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보험동향』 2020년 여름호 (통권 94호)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9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